

# 이주자로 살다

—이주자가 이야기하는 한국과 일본—





# 목차

---

## 1. 사업 개요

사업 배경과 목적 .....	9
사업 실시 개요.....	10
보고서 구성 .....	15

## 2. 보고

본 사업의 의의와 성과 .....	19
한국측 이주자 멤버의 보고 .....	27
일본측 이주자 멤버의 보고 .....	53
앞으로의 방향성 .....	77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류센터



일본국제교류센터 (Japan Center for International Exchange:JCIE)는 민간 조직의 입장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공익법인입니다. 「민간외교의 개척자」로서 정책 대화와 인적 교류, 조사 연구 등을 통해 대외관계의 강화, 지구규모의 과제에 대한 공헌, 사회의 다양성의 촉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발간사

이 보고서는 공익재단법인 도요다재단의 조성을 얻어 2017년 11월부터 2년간 실시해 온 한일교류사업 「이주당사자에 의한 정책제언: 한일 양국의 이주당사자의 교류와 배움을 통해」의 성과를 수록한 것입니다.

관광, 유학, 노동 이주, 결혼 등 다양한 이유와 배경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아시아 지역 내의 사람의 이동으로 아시아의 주요 유입국이자 도입국인 한국과 일본은 국적, 인종, 체류자격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로 변하면서 사회의 다양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은 사람의 이동과 정착을 통해 보여지는 한일 양국의 사회적 변화를 기회와 과제로 새롭게 인식하는 데 있어 이주하는 당사자들의 시점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일 양국의 이주 당사자에 초점을 맞춘 본 사업은 지금까지 없었던 의의를 가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업의 성과를 정리한 본 보고서가 인구 감소로 이주자·외국인의 도입과 통합이 커다란 정책적 과제로 재인식되어 가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게 있어 당사자의 관점에서 현재 상황을 재고하고 향후 방향성과 구체적인 시책을 모색하려는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본 사업을 국제조성사업으로 채택해 주신 도요다 재단 및 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 많은 협력과 도움을 주신 한일 양국의 이주자와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11월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류센터 이사장  
오카와라 아키오 (Akio Okawara)



# 사업 개요

---





## 사업 배경과 목적

한국과 일본은 이주자의 급증에 따른 사회의 다문화·다민족화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라는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공통적으로 안고 있다. 양국이 직면한 사회의 구조적 변화라는 공통 과제는 한일 양국의 교육, 의료, 노동, 복지 등 지금까지의 사회 시스템에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지속가능하고 활력있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이주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살릴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1980년 후반 이후 이주자 관련 법제도와 사회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주자가 급증했다고 하는 공통된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시민사회단체, 학자들을 중심으로 교류해 왔다. 이러한 한일 양국의 교류는 이주자·외국인 관련 법제도와 지역사회, 시민사회에 의한 지원 체계를 정비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배움의 장소로서의 역할을 맡아왔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이주자 관련 한일 교류는 한국인과 일본인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으며 한국과 일본의 법제도와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주자가 주체가 된 교류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향후 한일 양국에서 이주자의 유입과 정주화가 한층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주자 내부의 다양성과 이주자 관련 정책이 가져오게 될 이주당사자에 대한 복잡한 측면을 보다 깊게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될 것이기에 이주자를 중심으로 한 한일교류 또한 촉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류센터와 한국의 외국인 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아시아인권연대와 협력 하에 공익재단법인 도요다재단의 국제조성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이주자와 이주자 공동체의 교류사업 「이주당사자에 의한 정책제언:한일 양국의 이주당사자의 교류와 배움을 통해」(2017년11월~2019년10월)를 실시해 왔다.

본 사업은 교육, 노동, 의료 등의 문제를 겪는 당사자이면서 동시에 이주자가 가진 다양성을 고려한 새로운 시스템을 스스로의 현실에 바탕을 두고 모색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의 이주당사자와 그들의 공동체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본사업은 한국과 일본의 법제도, 시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그러한 제도, 시책을 주체적으로 활용해야 할 존재인 이주자와 그들의 공동체가 다른 문화, 입장을 가진 공동체와의 교류뿐만 아니라 다른 제도적 틀을 가진 국가에서 살아가는 이주자 공동체와 교류하여 자신들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그러한 상황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제언을 생각해 나가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아울러 한일 양국에서 이주자와 그들의 공동체의 사회 참여, 참가가 진전되려는 지금, 한국과 일본에서 살아가는 이주자와 그들의 공동체의 역량강화(empowerment)와 함께 한일 양국의 이민정책이 가진 과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제시함으로써 이주자들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려 노력했다.

## 실시 개요

### 멤버

#### 사업전체대표자

---

- 멘쥬 도시히로(Toshihiro Menju)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류센터 이사  
일본대표, 사업전체코디네이터
- 

- 이혜진(LEE Hyejin)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류센터 시니어 프로그램  
오피서

#### 한국대표

---

- 석원정(Seok Wonjeong)      외국인 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소장  
한국코디네이터
- 

- 이완(LEE Wan)      아시아인권문화연대 활동가(전 대표)

#### 일본 이주자멤버

---

- 슈레스터 부팔 만(Bhupal Man Shrestha)      에베레스트 인터네셔널 스쿨 저팬 이사장  
(네팔출신)
- 마립 센 부(Marip Seng Bu)      NPO법인PEACE이사장 (미얀마출신)
- 레이 벤츄라(Rey Ventura)      저널리스트·영상작가 (필리핀출신)
- 닛타 카즈후쿠(Tran Ngoc Phuc)      일반사단법인 재일베트남인협회 회장  
(베트남출신)※

#### 한국 이주자멤버

---

- 케이피 시토올라(K.P.Sitoula)      재한네팔인공동체(NCC)/주한네팔인협회(NRNA)  
(네팔출신)
- 소 모 뚜(Soe Moe Thu)      주한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 운영위원장  
(미얀마출신)
- 강슬기(Kang Seulgi)      천주교의정부교구 사회사목국 의정부 Exodus  
활동가 (필리핀과 한국 배경 이민2세)
- 원옥금(Nguyễn Ngọc Cẩm)      주한베트남교민회 회장 (베트남출신)

※단, 2019년도 한국시찰방문프로그램 등 일부 교류프로그램에는 일반사단법인 재일베트남인협회 사무국의 찬홍남 (Tran Phuong Nam)이 대리 참가하였음.

※단, 2018년도에는 다카야마 유키(Yuki Takayama, 베트남 출신), 언·몽원·엘헨리(L.Henry Mong Waing AUNG, 미얀마출신), 오타니 유리카(Yurika Otani, 필리핀과 일본 배경 이민2세)가 일본측 이주자멤버로 참가하였음

## 방문프로그램의 개요

### ◆2018년도 한국방문프로그램(4월25일~29일)

#### 4월25일(수요일)

---

- 오리엔테이션
- 서울글로벌센터
- 이주여성센터 상담센터

#### 4월26일(목요일)

---

-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 천주교의정부교구 사회사목국 의정부「EXODUS」
-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 성동다문화가족지원센터



#### 4월27일(금요일)

---

- 지구인의 정류장
-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안산「국경없는 마을」



#### 4월28일(토요일)

---

- 한일 멤버간 스터디

#### 4월29일(일요일)

---

- 네팔 하우스(네팔 공동체)
- 이주민센터「동행」(베트남 공동체)
- Padauk Glory + 미얀마 사원(미얀마 공동체)



◆2018년도 일본방문프로그램(8월23일~27일)

8월23일(목요일)

- 오리엔테이션



8月 24日(금요일)

- 에베레스트 인터네셔널 스쿨 저팬
- 신주쿠구립 오키보도서관+일반사단법인Kuriya
- 특정비영리법인 이주자와 연대하는 전국네트워크



8월25일(토요일)

- 무사시노시국제교류협회
- 네팔 페스티벌2018
- 미얀마출신 난민Kyaw Kyaw Soe씨와 미얀마 공동체

8월26일(일요일)

- 요코하마시립 나카국제교류라운지
- 카라바오의 모임



8월27일(월요일)

- 일본의 헤이트 스피치 관립법과 조례에 대해; 모리오카 야스코(師岡康子)변호사
- 한일 멤버간 스터디



◆2019년도 일본방문프로그램(5월30일~6월2일)

**5월30일 (목요일)**

- 신주쿠구립 우시고메나카노 초등학교
- 신주쿠교육위원회 교육지원담당자



**5월 31일 (금요일)**

- 하마마츠시「불취학 제로 사업」에 대해(하마마츠시 국제과)
- 닛케이 브라질 공동체 관계자
- 시즈오카현립 하마마츠오오히라다이고등학교
- 학교법인 Mundo de Alegria
- 일본의 인종차별철폐NGO네트워크 활동가들과의 교류회



**6월1일 (토요일)**

- 일본의 미등록 아동에 대해; 구사카 미치즈네(RINK;모든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지키는 간사이네트워크)
- 이주자와 연대하는 전국포럼·도쿄2019



**6월2일 (일요일)**

- 이주자와 연대하는 전국포럼·도쿄2019
- 일한 멤버간 스터디
- 이주자 관련 단체들의 네트워킹과 전국포럼운영; 도리이 잇페(이주자와 연대하는 전국네트워크 대표이사)



## ◆2019년도한국방문프로그램(7월7일~10일)

### 7월7일 (일요일)

- 주한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



### 7월8일 (월요일)

- 화원종합사회복지관+구로구청 다문화정책과+구로문화재단
- 구로중학교

### 7월9일 (화요일)

- 숙명여자대학 다문화통합연구소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센터)
- 난민인권센터
- 무지개청소년센터



### 7월10일 (수요일)

- 서울시서남권글로벌센터
- 아시아인권문화연대
- 한일 멤버간 스터디



## 보고서의 구성

본 보고서는 공익재단법인 도요다재단의 국제조성으로 2017년 가을부터 2년간 일본과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주자와 그들의 공동체(네팔,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의 교류와 배움을 통해 당사자의 시선으로 현재의 모습을 새롭게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시책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해 온 「이주당사자의 정책제언」사업의 성과를 정리한 것이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이하와 같다.

본 사업의 의의와 성과에서는 오랫동안 지역의 국제교류와 다문화공생, 이주자 관련 정책 제언 활동을 해 온 본 사업의 전체대표와 한국대표가, 한일 양국의 이주자 공동체의 교류와 배움이라고 하는 본 사업의 의의와 성과에 대해 한국과 일본에게 있어 중요한 시점을 언급하면서 정리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이주자 멤버의 보고에서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실시해 온 스터디와 모임, 공동체 방문과 함께 상대국 방문을 통해 얻은 배움을 바탕으로 “이민사회” 한국과 일본에서 살아가는 이주당사자로서의 문제 의식과 한일 양국의 공통 과제, 필요한 관점과 정책적 대응, 이주자 공동체와 본인의 활동에 있어 요구되어지는 시점, 활동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

앞으로의 방향성에서는 일본대표와 한국코디네이터가 한국과 일본에서 이주자 관련 활동에 종사해 온 경험과 본 사업의 코디네이터를 통해 보여진 한일 양국의 이주자 공동체의 활동과, 이주자 관련 정책, 사회의 변화를 언급하면서 사업의 성과를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려가야 할지에 대해 새로운 가능성과 과제를 정리하였다.





보고

---



# 본 사업의 의의와 성과

## 교류와 소통을 통해 한일 양국의 이주민정책의 구체적 차이를 보다.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석원정

### 1. 주목할 만한 한일 이주자 공동체 리더의 교류와 소통

일본이 한국과 여러 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으면서도 한국보다 10~20여년 먼저 사회적 변화를 경험한다는 점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다. 그렇기에 한국은 여러 측면에서 일본에 비해 ‘후발주자의 이점’을 상당한 정도 누릴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양국 관계에서 보이는 특징은 한국과 일본의 사회운동·활동가는 물론 민관의 이주민 정책 관련자들로 하여금 양국의 변화에 늘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한다.

한국 사회의 모든 변화는 이주민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압축적이면서 빠른 속도를 보여왔다. 그로 인해 어떤 측면은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발전해 나갔거나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측면은 일본이 진일보하여 한국이 여러 교훈을 얻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한일 관계의 배경 하에 지난 20여년간 한일 양국의 이주민인권 관계자들은 상호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하고 서로에 대해 학습해 왔으며 자국의 상황에 맞게 변용해 왔다. 그런 측면을 중시한다면 이번 프로젝트는 한일 양국 시민단체들의 오랜 교류와 소통의 점점 중의 하나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이주민 당사자들, 특히 개인이 아닌 커뮤니티의 리더로서 이주민 당사자가 양국을 방문하면서 비교,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류와 소통의 기회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 프로젝트의 독특함과 창의적 접근이 돋보인다 하겠다.

선주민의 시각이 아닌 이주민의 시선에 잡힌 한일 양국의 이주민 정책과 당사자들의 현주소는 어떠했을까. 이 보고서에 기록된 보고와 소감의 글만으로는 한일 양국의 이주민 정책의 전모를 볼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나,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측면, 혹은 양국에서 이주민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해 고심하던 활동가들이 자국에서 가장 당면하여 끌어안고 있는 의제가 무엇인지, 그 의제를 상대국가에서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는 있으리라고 본다.

## 2. 양국의 이주민 정책의 주요 차이점 인식과 한국측의 활용

한일 양국의 이주민 공동체 리더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공교육기관, 도서관·시립 주민이용기관과 같은 공공기관, 민관 거버넌스기관, 이주민 커뮤니티, 이주민 커뮤니티가 설립한 학교, 이주민권NGO 등을 방문했다. 운영기관, 이용자, 운영방식 등이 다른 다양한 기관들이 뚜렷한 운영방침 하에 이주민에게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하 중요한 배움과 시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1)이주배경청소년의 교육,체류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

한국측 멤버들의 주요 관심사였던 이주배경청소년의 교육권과 관련해서 일본의 정책은 중요한 시사점을 주었다. 이주민 커뮤니티가 주체가 되어 설립한 네팔 학교, 이주배경 학생들이 많은 지역의 국공립학교와 같이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 구성원화를 위해 지역에서 민관이 함께 정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는 모델을 볼 수 있었다.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의 적응과 성장을 위해 한국의 이주민권 NGO들이 요구해 왔던 정책들이 실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하겠다.

한국은 최근까지도 중도입국한 이주청소년의 전입학을 거절하는 등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교육정책이 몇몇 있기는 하나 정책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과제가 있다. 이러한 과제의 근저에는 한국어와 한국 물정에 취약한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과정에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조력할 것인가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플랜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 있다. 그 취약함이 일선 교육기관의 취약한 교육적 환경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공교육기관이 아동의 교육을 거부하는 현상이 수십 년째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에는 몽골학교 등 ‘대안학교’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학교들이 있는데, 이 학교들의 설립 배경에는 ‘공교육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주아동들이 있었다. 아동 교육의 대전제는 공교육에서 통합교육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즉 공적인 형태가 아닌 특수학교가 설립된다는 것은 그만큼 공교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수학교로서 해결해야 할 교육적 수요와 필요를 공교육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지속적 노력이 여전히 필요하다 하겠다.

### 2)지방자치정부의 역할을 다시 주목하다.

한국의 이주민 관련 정책과 사업들은 민간에서 먼저 제안, 시행되어 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국가가 주도하는 일상 사업화 되었다. 그러면서 자치분권이 아직 취약한 한국의 지방자치정부에서 행하는 이주민 관련 정책들도 중앙정부에서 수립, 시행하는 정책과 사업에 종속되다시피 하고 있다. 서울시나 경기도 안산시, 부천시처럼 독자적인 정책을 펼치는 지방자치정부가 있기는 하나, 중앙정부가 설정한 큰 테두리를 벗어나는 정책은 극히 희소하다.

그런 면에서 일부 지방자치정부가 독자적으로 긍정적이고 진보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현황은 좋은 시사점을 준다. 특히 혐오와 인종차별 관련하여 시민사회의 요청에

지방자치정부가 조례제정이나 벌칙 부과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과 성과는 한국의 중앙정부나 자치정부에게 좋은 해외사례로써 거론되고 있어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겠다. 일본의 중앙정부의 테두리에 종속되지 않는 지방자치정부의 이주민 정책 사업을 접하게 된 한국측 공동체 리더들은 새로운 상상력의 확장과 의욕을 가질 수 있었으리라 본다.

3)쌍방향적 교류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민주적 정부의 이주민 정책과 비민주적 정부의 이주민 정책에는 몇몇 큰 차이점이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선주민과 이주민의 관계가 쌍방향적 교류인가 일방향적 교류인가’이다. 일본의 선진적 지방자치체에서 ‘다문화공생’이라는 취지에 적합하게 상호교류를 축으로 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사례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정부의 중앙집권적인 (이른바) 다문화사업들에게 좋은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4)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이주민 공동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다.

이주민 공동체와 관련해서 한국의 이주민 공동체 결성과 변화의 과정은 한국의 이주민인권운동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7년 한국 정부가 이주민사업을 국가 주도적인 일상사업으로 정책화한 이후, 이주민 공동체는 이전 시기의 공동체들과는 질적, 양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가한 한국의 이주민 리더들은 2007년 이전부터 활동해 왔던 리더들로서, 과거의 역동적이고 개척적이면서도 불안정했던 커뮤니티의 활동이나 당사자 활동가들을 기억하면서, 그 기억의 시선으로 일본의 모습을 보고 싶었으리라 짐작한다. 실제로 한일 교류를 통해 사회적 변화가 큰 한국과 비교해서 뚜렷이 안정적으로 보였던 일본 사회에 조금은 놀라기도 하였지만, 과거에도 앞으로도 일본의 정책들이 향후 한국의 이주민 정책에 여러 모로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일본의 이주민 정책의 다양한 면을 보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이주자 리더들이 한 국가의 경험을 짧은 기간에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선불리 해석,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중요한 경험을 하였고 이번 프로젝트가 활동가로서 인식의 깊이를 더하는 계기로 작용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 3. 새로운 접근을 기대하며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2005년 고용허가제의 도입,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 이후 한국 사회에 일었던 변화를 일본의 이주민 정책과 구체적으로 비교해 봄으로써 한국의 이주민 정책의 허실, 개선점과 보완점, 확대 필요성 등을 조금은 가늠해 볼 수 있었다고 본다.

프로젝트 진행 중에 한국에서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가능케 했던 요인에 대한 질문을 몇 번이나 받았다. 한국의 이주노동자도입제도를 둘러싼 운동도 그러하였지만, 사회운동이라 함은 발 딛고 있는 사회로부터 명분, 전략과 전술이 도출되는 영역이라 극히 원론적인 답변 외에는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한편 한국의 이주민 인권진영의 입장에서도 일본의 새로운 외국인력도입제도의 내용과 정착에 많은 관심이 있기에 다른 방식으로라도 양국의 제도를 깊이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것도 유의미하리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이지 않았던 이 프로젝트의 경험과 성과가 잘 모여 다음을 위한 밑거름으로 선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대한다.

## 이주자 공동체의 목소리 듣기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류센터  
멘쥬 도시히로

### 1. 전례없는 사업

일본에서 다문화공생 관련 활동이 시작된 건 1990년대로 지금까지도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맥에서 봤을 때 본 프로젝트는 두 가지 점에서 매우 특징적이며 전례없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겠다.

먼저 이주자인 체류외국인을 본 프로젝트의 주역으로 삼은 것이다. 이주자 공동체의 대표가 참가해 자신들의 시점에서 다문화공생을 논하고 제언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 다문화공생이란 일본인의 시점에서 이주자에 대한 대응 방안을 생각해 사업의 객체로서 이주자를 바라보며 실시해 왔다. 그렇기에 이주자는 과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라 치부하여 이주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일본인의 인식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일본에는 문제를 안고 있는 이주자도 많으며 그들을 지원한다는 관점은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 자신의 생각에 귀기울이는 것, 그리고 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자신들의 진짜 목소리를 일본사회에 전달하는 것을 촉진하는 활동은 거의 이루지지 않았다. 본 프로젝트는 이러한 기회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두 번째는 일본과 한국의 이주자들이 서로 교류하고 역량강화(empowerment)를 해 나가면서 양국의 제도와 사회를 이주자의 시점에서 직시한다는 점이다. 서로 양국을 방문해 이주자 입장에서 양국의 사회 환경과 제도, 이주자 공동체의 바람직한 모습을 통찰한 후 자신들의 생각을 바탕으로 제언을 하는 것을 의도했다. 이러한 전례가 없는 사업이 실시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출신으로 일본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후 관련 주제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가진 프로그램 오피서가 우리 센터에 있었던 것이 크다.

프로젝트 자체는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었다. 먼저 일본의 경우 이주자 공동체를 찾아 본 프로젝트에 참가 가능한 일정 정도의 견식을 가진 이주자를 만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프로젝트 도중에 멤버가 바뀌어 총 7명의 이주자가 본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되는 등 이주자들의 일본에서의 불안정한 생활도 배경 중 하나였으리라 생각된다.

## 2. 이주자로서의 시점

본 프로젝트에 참가한 이주자는 서로 놓여진 입장은 크게 다르지만 프로젝트를 통해 적지 않은 만남을 가지면서 일본의 이주자라는 공통 요소를 통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또한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갔다. 일본의 대학·대학원에서 공부한 후 고급 인재로서 활약하는 사람, 난민 당사자, 난민의 자녀로 일본에 와 일본에서의 기반을 닦아가는 사람 등 서로의 성장 과정과 일본에서의 상황도 각자 달랐다. 하지만 저마다 일본에서 자신이 있을 곳과 지위를 확립해 나가는 과정으로서의 인생은 우여곡절과 타향인 일본에서의 고생과 기쁨으로 물들어 있었다.

일본은 외국인을 일시적 체류자로 여겨 정주를 전제로 그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게을리해 왔다.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주자 개개인이 직면했을 여러 체험과 고생은 일본인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도 많겠지만, 본래 다문화공생이 되었든 이민정책이 되었든 이주자 본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단, 참가한 이주자 멤버들의 공통점은 과거에 말과 글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생을 경험했으면서도 밝고 기백있게 행동하며 그들에게 도움을 준 일본인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 사회에 공헌하고 싶어한다거나, 같은 출신국 이주자들이 일본에서 불필요한 노고없이 생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 3. 「한국에 이주하는 게 나왔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참가자는 한 번 또는 두 번, 상대방 국가를 방문했다. 일본측 멤버들은 하나같이 한국에서 이주자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 있는 것에 크게 놀랐다.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당 규모의 예산 배분을 하며, 전문가가 이주자가 직면한 여러 과제를 지원하는 체계가 정비되어 있었다. 한편 일본에서는 이주자에 대한 지원은 비영리단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 이하 정도밖에 배분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에 이주하는 게 더 나왔다’라는 말은 일본측 멤버의 솔직한 목소리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말이 나올 정도로 양국의 차이는 현저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측 멤버들은 외국인 도입이 일본에서 먼저 시작되었고 그러한 의미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비영리단체가 한국보다 더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평가했다. 한국 멤버들과 방문한 비영리단체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랜 경험을 살려 이주자에게 밀착된 사업, 이주배경 청년을 리더로 육성하는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는 예도 보였다.

한일 양국의 이주자는 시찰을 통해 상대국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이주자 공동체간의 교류를 통해 서로를 격려하는 장면이 몇 번이고 있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네팔 공동체가 도쿄에 네팔학교를 설립하였지만 한국에서는 그러한 예가 없어 한국에서 설립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일본의 경험에서 배우고자 하는 강한 의욕을 보였다. 또한 한일 양국에서 난민, 노동자로 체류하는 사람이 많은 미얀마 출신 이주자는 한국에서 미얀마 출신 이주자들이 다양한 공동체의 결속을 통해 노동상담센터를 만든 것을 보고 일본에서도 공동체간의 결속을 강화할 수 없을까라며 모색을 시작했다.

상호교류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의 행동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교류의 경험 자체가 강한 인상과 함께 영향을 주었으며 동포를 도와주고 싶다는 강한 마음과 참가자 자신이 평소부터 강한 문제의식과 행동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건 분명하다. 이주자로서 역경을 이겨낸 자가 가진 생명력은 일본인이 이미 잃어버린 것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이주자는 사회적으로 폐색된 분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일본에게 커다란 가능성을 안겨주는 존재라 하겠다.

#### 4. 이주자 공동체의 중요성

본 프로젝트의 성과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본에 있는 이주자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의 중요성이다. 일본인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가운데 이주자는 다양한 체류자격으로 일본에 와 살기 시작한다. 이러한 흐름은 이제 멈추게 할 수 없으며 또한 멈추게 하는 것은 고령화가 한층 더 진행될 일본 사회의 지속성 자체를 위협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주자의 존재는 일본에게 필요불가결하다 할 수 있으나, 우리 일본인은 얼마만큼 이주자의 생활과 이주자 공동체에 대해 알고 있을까? 어떠한 리더가 있으며 어떻게 조직화가 이루어졌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일본 사회에게 지극히 중요해질 것이다.

본 프로젝트에 참가한 일본에 사는 이주자들로부터 일본으로 새로 이주해 온 신규 이주자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의 필요성과 보다 다양해지는 이주자들에 대한 다양한 일본어교육 기회 제공의 필요성 등의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이주자 공동체가 이주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원스톱 센터의 역할을 담당하고 싶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문화공생을 둘러싼 기존의 논의에서는 충분히 검토되어 오지 않은 시점이다.

일본 정부도 일본 사회도 지금까지 이러한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주자 공동체와의 대화야말로 일본의 공생사회를 실현해 가는데 있어 한층 더 중요성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프로젝트의 최대 의의는 일본에서 생활하는 이주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며 이주자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었다고도 하겠다.

이주자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는 것과 함께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했을 때 처음으로 그들이 가지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며 공생사회가 실현될 것이다. 본 프로젝트가 그러한 새로운 인식과 방안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 한국측 이주자 멤버의 보고

## ကိုရီးယား- ဂျပန် နှစ်နိုင်ငံတွင်း ရွှေ့ပြောင်းသူနှင့် ရွှေ့ပြောင်းသူကွန်မြူနတီအပေါ် မျှော်လင့်ခြင်းနှင့် အနာဂတ်အလားအလာ

စိုးမိုးသူ လုပ်ငန်းကော်မတီဥက္ကဋ္ဌ  
မြန်မာအလုပ်သမားလူမှုဖူလုံရေးစင်တာ

### ၁။ ဂျပန်နိုင်ငံတွင်း ရွှေ့ပြောင်းသူပေါ်လစီနှင့် ရွှေ့ပြောင်းသူ ကွန်မြူနတီများ ပုံရိပ်

ကိုရီးယား၊ဂျပန် နှစ်နိုင်ငံတွင်း ရွှေ့ပြောင်းသူများ ဖလှယ်ရေး ပရောဂျက်အရ ကိုရီးယားနှင့် ဂျပန်နိုင်ငံများသည် ရွှေ့ပြောင်းအလုပ်သမားများအား မဖြစ်မနေ လိုအပ်နေသည့် နိုင်ငံများဖြစ်ကြသည်ကို သိရှိခဲ့ရသည်။ ထို့ကြောင့် နှစ်နိုင်ငံ၏ အစိုးရများသည် ရွှေ့ပြောင်းသူများအတွက် မျိုးစုံလင်သော စနစ်များကို အသီးသီး ကျင့်သုံးနေကြသည်။ ထိုကဲ့သို့သော် စနစ်မျိုးစုံလင် ပြဌာန်းထားရလောက်အောင်ပင် အဆိုပါနိုင်ငံများအတွက် ရွှေ့ပြောင်းသူများသည် အလွန် လိုအပ်နေကြခြင်းဖြစ်သည်။ ထို့ကြောင့် ရွှေ့ပြောင်းသူများနှင့် အတူတကွ တည်ဆောက်သော အနာဂတ်အတွက်လည်း ပြင်ဆင်နေကြသည်ကိုလည်း လေ့လာ တွေ့ရှိခဲ့ရသည်။

သို့သော်ငြားလည်း ဂျပန်နိုင်ငံရှိ မိမိနှင့် အခြေအနေတူသော ခိုလှုံသူများနှင့် တွေ့ဆုံဆွေးနွေးခဲ့ရာတွင် နေထိုင်ရာ တိုင်းပြည်ကွဲပြားလည်း ရွှေ့ပြောင်းသူတို့ ခံစားရသော နာကျင်မှု၊ အခက်အခဲ၊ အစိုးရ၏ ဘေးဖယ်တတ်သော အမူအကျင့်များမှာ အားလုံး တူညီနေသည်ကို တွေ့ရှိခံစားခဲ့ရသည်။ တဘက်တွင် ထောက်ပံ့ပေးသော စနစ်များ ကျင့်သုံးနေသော်လည်း အခြားတဘက်တွင်မူ ကိုရီးယားအစိုးရနှင့် ဂျပန်အစိုးရများ၏ ရွှေ့ပြောင်းသူအတွက် စနစ်များသည် ခွဲခြားပိတ်ပင် ချုပ်ချယ်ကန့်သတ်မှုများတွင် ထပ်တူညီနေသည်။

ကိုရီးယားမှာ လှုပ်ရှားခဲ့သော မိမိအတွေ့အကြုံများကို အခြေခံ၍ ဂျပန်နိုင်ငံတွင်း ရွှေ့ပြောင်းသူအရေး လှုပ်ရှားမှုကို လေ့လာသော် ဂျပန်လူမှုအသိုက်အဝန်း၏ ရွှေ့ပြောင်းသူအပေါ် ထောက်ပံ့ရေး လှုပ်ရှားမှုများသည် အလွန် မျိုးစုံလင်သော်ငြား တစ်ဘက်မှာမူ ရွှေ့ပြောင်းသူများ ကိုယ်တိုင်ပါဝင်လှုပ်ရှားမှု (၀ါ) ရွှေ့ပြောင်းသူကွန်မြူနတီများ၏ လှုပ်ရှားမှုများမှာမူ များစွာ အားနည်းနေသည်အား တွေ့မြင်ရသဖြင့် အလွန် အားမရဖြစ်ခဲ့သည်။ ရွှေ့ပြောင်းသူများနှင့် အတူတည်ဆောက်သော လူမှုအသိုက်အဝန်းအတွက် ရွှေ့ပြောင်းသူများသည် ပံ့ပိုးမှုကိုသာ ခံယူသောသူများအဖြစ် ရပ်တည်မသင့်ပဲ လူမှုအသိုက်အဝန်းကို အတူတကွ တည်ဆောက်ကြသော တာဝန်ယူတတ်သူများအဖြစ် ရပ်တည်သင့်ကြောင်း မိမိ စွဲမြဲ ယုံကြည်သည်။

# ၂။ ပုစ္ဆာသစ်အတွက် ခံယူချက်နှင့် ကြိုးပမ်းမှု

ဂျပန်လေ့လာရေးခရီးတွင် သွားရောက်ခဲ့သော နီပေါကျောင်းအပါအဝင် ရွှေ့ပြောင်းသူဆိုရာ ကျောင်းအချို့သည် ရွှေ့ပြောင်းသူများ ကိုယ်တိုင် ဦးဆောင်၍ ကောင်းစွာ လည်ပတ်နေသည်အား အထူး ဝမ်းသာစွာ မြင်တွေ့ခဲ့ရသည်။ အထူးသဖြင့် ဂျပန်ရှိ နီပေါကျောင်းသည် နီပေါနိုင်ငံပြင်ပတွင် ပထမဆုံး တည်ထောင်သောကျောင်းဖြစ်ပြီး ပြည်ပရှိ ကျောင်းတည်ထောင်ခြင်းနှင့် ဆိုင်သော ဥပဒေအား ပြဌာန်းသည်အထိ အသိအမှတ်ပြုခံရဖို့ ၂နှစ်တာ ကြာခဲ့ရသော်ငြား နီပေါဦးဆောင်သူများ၏ အားထုတ်ကြိုးပမ်းမှုကြောင့် ဂျပန်နိုင်ငံတွင်း နေထိုင်ကြသော များစွာသော

နီပေါကလေးငယ်များမှာ ပညာနို့ရည်ကို သောက်သုံးခွင့်ရခဲ့ကြသည်။ ထို့ပြင် အဆိုပါကျောင်းတွင် တက်ရောက်သောအတန်းသည် နီပေါနိုင်ငံတွင်း အတန်းများအတိုင်း အသိအမှတ်ပြုခံရပြီး နီပေါသို့ ပြန်ရောက်ပါကလည်း မိမိအသက်အလိုက် သက်ဆိုင်ရာ အတန်းကိုလည်း ရွေးချယ် တက်ခွင့်ရှိသည်။ ထို့ကြောင့် မိဘအခြေအနေအရ မိခင်နိုင်ငံသို့ ပြန်ခဲ့ရသော် နီပေါရှိ ကျောင်းများတွင် တက်ရောက်ခွင့်ရှိသလို ဂျပန်ရှိ အခြား ကျောင်းများကိုလည်း ရွေးချယ် တက်ရောက်ခွင့်ရှိသဖြင့် ကလေးငယ်များသည် သူတို့နှစ်သက်သလို ပညာသင်ယူရန် အခွင့်အလမ်းများအား စိတ်တိုင်းကျ ရွေးချယ်ခွင့်များကိုလည်း ပိုင်ဆိုင်ကြသည်။

နီပေါကျောင်း လည်ပတ်မှုစနစ်ကို လေ့လာရင်း ကိုရီးယားတွင် နေထိုင်နေသော မြန်မာနိုင်ငံသား ခိုလှုံသူမိသားစုများ၏ ကလေးငယ်များ ပညာရေးအတွက် စဉ်းစားကြည့်မိသည်။ လက်ရှိ ကလေးငယ်များသည် ကိုရီးယား ကလေးများနည်းတူ ကိုရီးယားကျောင်းများသို့သာ တက်ရောက်ကာ တူညီသော ပညာရေးကို သင်ယူနေကြသည်။ မိဘများမှာ စားဝတ်နေရေးအတွက် နေ့ညမရွေး ရုန်းကန်နေကြရသဖြင့် သူတို့၏ ကလေးငယ်များနှင့် အတူ ရှိသော အချိန်မှာ အလွန် နည်းပါးသည်။ ထို့ကြောင့် ကလေးငယ်များသည် မိဘများထက် ကိုရီးယားသူငယ်ချင်းများနှင့် တွေ့ဆုံချိန် ပိုမို များပြားသဖြင့် ကိုရီးယားကလေးငယ်များနှင့် အသွင်တူညီနေကြပြီး မိခင်တိုင်းပြည် မြန်မာပြည်နှင့် ပတ်သက်ပါက မသိတာတွေ များလှသည်။

သို့သော် မြန်မာကွန်မြူနစ်တီခေါင်းဆောင်များသည် ကလေးများ၏ ထိုသို့သော အခြေအနေများကို ပုံမှန် အခြေအနေဟုသာ တွေးမြင်ကြသည်။ မိမိသည် ဂျပန်နိုင်ငံတွင် မြင်တွေ့ခဲ့သော နီပေါကျောင်း လည်ပတ်ပုံစနစ်အား ကွန်မြူနစ်တီခေါင်းဆောင်များနှင့် ဆွေးနွေးကြည့်သော်ငြား ငွေကြေး အခက်အခဲကြီးမားမှုအောက်တွင် ဆွေးနွေးမှုများ ကွယ်ပျောက်သွားခဲ့ရသည်။ ကျွန်တော်တို့ ကလေးငယ်များ၏ ပညာရေး ရွေးချယ်ခွင့်နှင့် နေထိုင်ခွင့်သည် ကျွန်တော်တို့ ရှေ့ကို ဖြေရှင်းရမည့် ပုစ္ဆာတစ်ပုဒ်အဖြစ် ကျန်နေသည်။

ဂျပန်သို့ လည်ပတ်စဉ် ကာလတွင် တွေ့ဆုံခဲ့သော မြန်မာနိုင်ငံသား ရွှေ့ပြောင်းသူများနှင့် တွေ့ဆုံ စကားပြောဆိုကြည့်ရာတွင် ကိုရီးယားတွင်း ရွှေ့ပြောင်းသူများ ဘဝထက် ဂျပန်နိုင်ငံတွင်း ရွှေ့ပြောင်းသူများ ဘဝက ပိုမို သာလွန်သည်ကို တွေ့ရှိခဲ့သည်။ အထူးသဖြင့် မိမိအမြင်တွင် အလုပ်သမားအခွင့်အရေး ကာကွယ်ပေးမှုတွင် ဂျပန်သည် ကိုရီးယားထက် သာလွန်သည်ဟု မြင်သည်။ ဂျပန်အစိုးရ၏ ဘေးဖယ်တတ်သော စနစ်ကို အနည်းငယ် ပြင်သွားပါက အခြေအနေများ ပိုမိုတိုးတက်လာက ဂျပန်နိုင်ငံတွင်း ရွှေ့ပြောင်းသူများ ဘဝသည် ယခုထက်ပိုမို ကောင်းမွန်သွားနိုင်မည်ဟု မျှော်လင့်မိသည်။ သို့သော် ဂျပန်နိုင်ငံသည် အထောက်အထားမဲ့(ဗီစာမဲ့) ရွှေ့ပြောင်းသူများကိုမူ အရာအားလုံးမှ ဘေးဖယ်ထားသည်အား စိတ်မကောင်းစွာ တွေ့ခဲ့ရပြန်သည်။

ဂျပန်တွင် မိမိတို့အဖွဲ့ သွားရောက် လေ့လာခဲ့သော ရွှေ့ပြောင်းသူများ ထောက်ပံ့ပေးသည့် ဌာနဆိုင်ရာများ အားလုံးနီးပါး အထောက်အထားမဲ့ရွှေ့ပြောင်းသူများနှင့် ပတ်သက်ပြီး မည်သို့သော ပံ့ပိုးမှုကိုမှ စိတ်မဝင်စားကြသည်ကို တွေ့ခဲ့ရသည်။ နိုင်ငံတစ်နိုင်ငံတွင်း အကြောင်းအရာအား အချိန်တိုအတွင်း သုံးသတ်ခြင်းသည် မမှန်ကန်နိုင်သော်ငြား နိုင်ငံ၏စီးပွားရေးအောက်ခြေပိုင်းတွင် တိတ်ဆိတ်စွာ တာဝန်ယူပေးနေသော အထောက်အထားမဲ့ရွှေ့ပြောင်းသူများအား နွေးထွေးစွာ ကမ်းလင့်သော ပံ့ပိုးမှုများ တည်ရှိသော ဂျပန်နိုင်ငံ လူမှုအသိုက်အဝန်းအား မိမိအနေဖြင့် မျှော်လင့်မိသည်။

## ၃။ ဖလှယ်မှုမှသည် အနာဂတ်သို့ လှမ်းသော စဉ်ဆက်မပြတ် ချိတ်ဆက်မှုသို့

ရွှေ့ပြောင်းသူလှုပ်ရှားမှု၊ ကွန်မြူနတီလှုပ်ရှားမှုနှင့် ပတ်သက်သည့် ပရောဂျက်တွင် အတူတကွ ပူးပေါင်းပါဝင်ကြသော ကိုရီးယားတွင်း ကွန်မြူနတီခေါင်းဆောင်များနှင့် ပိုမို နီးကပ်ရင်းနှီးကာ ရွှေ့ပြောင်းသူနှင့် ပတ်သက်သော မျိုးစုံလင် အကြောင်းအရာများကိုလည်း ပိုမို သိရှိပြီး ဖြေရှင်းရမည်များအားလည်းတွေ့ခဲ့ရသည်။ ရွှေ့ပြောင်းသူခေါင်းဆောင်များသည် ရွှေ့ပြောင်းအလုပ်သမား၊ ရွှေ့ပြောင်းအမျိုးသမီး၊ ရွှေ့ပြောင်းသူကလေး၊ ခိုလှုံသူ၊ ရွှေ့ပြောင်းလုပ်ငန်းရှင် တွေ့ဆုံကြသည့်အခါတိုင်း တိုးတက်ပြောင်းလဲရမည့် အသီးသီးဖလှယ်ကြရင်း ရွှေ့ပြောင်းသူများ ကြိုဆိုနေရသော အခြေအနေတစ်ရပ်လုံးအား လေ့လာသိရှိနိုင်ခဲ့သည်။ စသည့် ကဏ္ဍအသီးသီးတွင် တက်ကြွစွာ လှုပ်ရှားနေကြသောသူများဖြစ်သဖြင့် ကွန်မြူနတီများ ရင်ဆိုင်နေရသော အခက်အခဲ၊ အံ့ဩဖွယ်အဖြစ်အပျက်များ၊ အခြေအနေများ၊ စနစ်ဆိုးကြောင့် ပေါက်ကွဲထွက်လာသော မကျေနပ်မှုများအား

ထို့ပြင် ရွှေ့ပြောင်းသူကွန်မြူနတီခေါင်းဆောင်များ ကိုယ်တိုင် ရင်ဆိုင်နေရသော ပြဿနာများကိုလည်း အတူတကွ ဖလှယ်နိုင်ခဲ့သည်။ အခြား ရွှေ့ပြောင်းသူများထက် ကိုရီးယားဘာသာစကား၊ ယဉ်ကျေးမှု၊ ကိုရီးယားဓလေ့ စရိုက်များအား အထူး အကျွမ်းဝင်ရှိပြီးကြသော ကွန်မြူနတီခေါင်းဆောင်များကိုယ်တိုင်ပင် ရှောင်ရှားနိုင်ခြင်းမရှိသော လက်ရှိ အခြေအနေနှင့် မကိုက်ညီသည့် ကိုရီးယားအစိုးရ၏ ပိတ်ပင်ကန့်သတ်မှုများသည် စနစ်များအပေါ် စိတ်ပျက်ခဲ့ရသည်။ ဒီတကြိမ် ပရောဂျက်ကို အကြောင်းပြု၍ ဆုံးခဲ့ကြသည့် ရွှေ့ပြောင်းသူ ကွန်မြူနတီ ခေါင်းဆောင်များ နှင့် နောင်တွင်လည်း ပုံမှန်ဆုံတွေ့ကာ ရွှေ့ပြောင်းသူဆိုင်ရာပြဿနာမျိုးစုံလင်များအားဆွေးနွေးဖလှယ်ပြီးဖြေရှင်းရန်နည်းလမ်းများကိုအတူ ရှာဖွေကာ လူမှုအဖွဲ့အစည်းများနှင့် ပူးပေါင်းပြီး အင်အား တည်ဆောက်၍ ကိုရီးယားအသိုင်းအဝန်းသို့ တောင်းဆိုခြင်းဖြင့် ရွှေ့ပြောင်းသူတို့ ဘဝ ယခုထက် ပိုမို အဆင်ပြေစွာ နေထိုင်နိုင်သော ကိုရီးယားလူမှုဝန်းကျင်အား တည်ဆောက်သွားနိုင်မည့် နည်းလမ်းများကို ရှာဖွေ သွားမည်ဖြစ်သည်။

ဂျပန်ဘက် ရွှေ့ပြောင်းသူများ၊ ရွှေ့ပြောင်းသူခေါင်းဆောင်များမှတစ်ဆင့် ဂျပန်တွင်း မိမိနိုင်ငံသားများ ဘဝ တိုးတက်ရေးအတွက် ကြိုးပမ်းကြသော နည်းလမ်းများကို လေ့လာခဲ့ရာတွင် နီပေါကျောင်းနှင့် ဘရာဇီးကျောင်းသို့ လေ့လာစဉ် တွေ့ရှိခဲ့ရသော ပညာရေးလှုပ်ရှားမှုများအား လွန်စွာ ကျေနပ်ခဲ့ရသည်။ ထိုကျောင်းများမှ ထွက်လာသော ရွှေ့ပြောင်းသူများသည် နောင်တွင် ရွှေ့ပြောင်းသူတို့အတွက် လိုအပ်သော လှုပ်ရှားမှုများအား စိတ်ဝင်စားစွာ ပါဝင်ကြရင် လွန်စွာ ကောင်းလေစွဟု မျှော်လင့်မိသည်။

တိုင်းတပါးတွင် စိမ်းကားသော ပတ်ဝန်းကျင် ကာလကြာရှည်နေထိုင်သော ရွှေ့ပြောင်းသူများအတွက် အထူးသဖြင့် သိရှိခွင့် ဟူသည် အလွန်အရေးကြီးသည်။ မသိလို မိမိအခွင့်အရေးများ ဆုံးရှုံးခဲ့ရသော ရွှေ့ပြောင်းသူများအား ကိုရီးယားနိုင်ငံတွင် များစွာ မြင်တွေ့ခဲ့ရသည်။ ရွှေ့ပြောင်းသူ ကွန်မြူနတီခေါင်းဆောင်များအနေဖြင့် ဘာသာစကား တံတိုင်း အတားအဆီးကြောင့်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များအား မရယူနိုင်သော မိမိနိုင်ငံသား ရွှေ့ပြောင်းသူများ၏ သိရှိခွင့်အား အကွယ်အကွယ်ပေးသည့် လှုပ်ရှားမှုအား များစွာပြုလုပ်ရန် လိုအပ်ပြီး ထိုသို့သော လှုပ်ရှားမှုတွင် ရွှေ့ပြောင်းသူကျောင်းမှ ထွက်ပေါ်လာသော ရွှေ့ပြောင်းသူများလည်း ပူးပေါင်း ပါဝင်နိုင်အောင် စီမံ ဆောင်ရွက်ဖို့လည်း အထူး လိုအပ်ပေသည်။

ထို့ပြင် ပရောဂျက်ကို အကြောင်းပြု ဆုံတွေ့ခဲ့ရသော ကွန်မြူနတီများ၏ နက်ဝက်ခံသည် ကိုရီးယားဂျပန် နှစ်နိုင်ငံတွင်း ရွှေ့ပြောင်းသူကွန်မြူနတီလှုပ်ရှားမှုများတွင် အကူအညီဖြစ်စေသော အခွင့်အလမ်းများကို ရှင်သန်စေခြင်းအား မျှော်လင့်မိသည်။

# ၄။ အသိအမှတ်ပြုမှုအောက်မှာ အလားအလာရှိသော ရွှေ့ပြောင်းသူကွန်မြူနတီ၏ တည်ငြိမ်သောလှုပ်ရှားမှု

ကိုရီးယား- ဂျပန် နှစ်နိုင်ငံတွင်း ရွှေ့ပြောင်းသူ ပေါ်လစီများ၊ ရွှေ့ပြောင်းတို့အကြောင်း လေ့လာရင်း ရွှေ့ပြောင်းသူအရေး လှုပ်ရှားမှုတွင် ဘုံအကြောင်းအရာဖြစ်သော အခက်အခဲနှင့် ဖြေရှင်းရမည်များ၊ နှစ်နိုင်ငံ၏ အနာဂတ်နှင့် ဆက်နွယ်နေသော ဖြစ်လာနိုင်ချေရှိသည့် ရွှေ့ပြောင်းသူပေါ်လစီများနှင့် ပတ်သက်ပြီး မိမိသည်လည်း ရွှေ့ပြောင်းသူအရေးလှုပ်ရှားသူတစ်ဦးဖြစ်သည်နှင့်အညီ နောင်အနာဂတ်အတွက် ကြိုတင်ပြင်ဆင်ထားရမည့် လမ်းကြောင်းများကိုလည်း ရှာဖွေတွေ့ရှိခဲ့သည်။ အထူးသဖြင့် ရွှေ့ပြောင်းသူများကိုယ်တိုင်လှုပ်ရှားမှု၏ အရေးပါမှု၊ ရွှေ့ပြောင်းသူတို့ အပေါ်ထားရှိသော ဒေသတွင်းပြည်သူများ၏ အမြင်တိုးတက်ရန် လိုအပ်မှုနှင့် ရွှေ့ပြောင်းသူ ကွန်မြူနတီ၏ လှုပ်ရှားမှုများ တိုးတက်စေမည့် အိုင်ဒီယာများကို ရရှိခဲ့သည်။

မိမိအနေဖြင့် ရွှေ့ပြောင်းသူကွန်မြူနတီသည် ဒေသခံများနှင့် မဆက်ဆံပဲ သီးခြားရပ်တည်လှုပ်ရှားခြင်းမျိုး မပြုအပ်ဟု ကောင်းစွာ ယုံကြည် လက်ခံထားသည်။ ဒေသခံများနှင့် ဆက်နွယ်ကာ အတူတကွ လှုပ်ရှားမှု ကွန်မြူနတီ၏ တိုးတက်မှုကို ရရှိနိုင်မည်ဟု ယုံကြည်သည်။ လက်တွေ့မှာလည်း ဒေသတွင်း လူမှုအဖွဲ့အစည်းများ၊ တိုင်းရင်းဆေးသမားရှင်များနှင့် ဆရာဝန်များ၊ ရှေ့နေ၊ အလုပ်သမားရှေ့နေ၊ ရဲ စသည်တို့နှင့် ချိတ်ဆက်ပြီး မြန်မာကွန်မြူနတီနှင့် အတူပြုလုပ်သော လှုပ်ရှားမှုများကို ပြုလုပ်နေသည်။ မြန်မာကွန်မြူနတီက ဦးဆောင်၍ မြန်မာနိုင်ငံသား အဖွဲ့ဝင်များနှင့်အတူ ဒေသတွင်း သန့်ရှင်းရေး၊ ရဲများနှင့်အတူ ဒေသတွင်း လုံခြုံရေးအဖွဲ့၊ အလုပ်သမားရှေ့နေနှင့်အတူ အလုပ်သမားရေးရာဆွေးနွေးတိုင်ပင်ခြင်း၊ ဆရာဝန်များနှင့်အတူ ဆေးကုသခြင်း စသည်တို့သည် အဓိက လှုပ်ရှားမှုများ ဖြစ်ကြသည်။

တဖန် ရွှေ့ပြောင်းသူတို့အတွက် ကွန်မြူနတီဟူသည် အသက်သွေးကြောကဲ့သို့ဖြစ်သဖြင့် ကွန်မြူနတီ ရေရှည် တည်တန့်ရန် လိုအပ်သည်။ ကွန်မြူနတီသည် ရွှေ့ပြောင်းသူတို့၏ အသက်သွေးကြော မပြတ်တောက်ရအောင် ကာကွယ်ပေးသော တာဝန်ကို ယူရမည်ဟု ဆိုလိုခြင်းဖြစ်သည်။ သို့သော် လက်တွေ့တွင် ရွှေ့ပြောင်းသူ ကွန်မြူနတီများ ရပ်တည်ရန် အလွန်ခက်ခဲသည်။ အထူးသဖြင့် ဘဏ္ဍာရေးအခက်အခဲသည် အကြီးမားဆုံး ဖြစ်သည်။ ထိုအခက်အခဲကို ဖြေရှင်းရန် မြန်မာကွန်မြူနတီသည် မြန်မာရွှေ့ပြောင်းသူများအား အဖွဲ့ဝင်အဖြစ် ဝင်စေပြီး လစဉ်ကြေးအား ပေးစေကာ ကွန်မြူနတီ လည်ပတ်နိုင်ရန် ကြိုးစားနေသည်။

အသေးစိတ်ဆိုရသော် ကွန်မြူနတီသည် မိခင်နိုင်ငံသားတို့ အခက်အခဲကို သွက်လက်စွာ ဖြေရှင်းနိုင်လေ အဖွဲ့ဝင် စုဆောင်းခြင်းသည်လည်း အဆင်ပြေလေဖြစ်သည်။ ကွန်မြူနတီက မိခင်နိုင်ငံသားတို့ အခက်အခဲကို ကောင်းစွာ ပြေ ဖျော့ခွဲသော အကြောင်းအရာများကို ဆိုရှယ်လီဒီယာတွင် ပုံမှန်ဆက်တိုက် တင်ပြရင်း ကွန်မြူနတီ၏ လှုပ်ရှားမှုကို နားလည် သဘောပေါက်ပြီး ကွန်မြူနတီအပေါ် စိတ်ဝင်စားလာအောင်ပြုလုပ်ရသည်။ ထို့ပြင် မြန်မာနိုင်ငံသားတို့သည် စာနာတတ်ခြင်း၊ လှူဒါန်းတတ်ခြင်း၊ ဂုဏ်သိက္ခာရှိခြင်း စသည်တို့အပေါ် အထူး အလေးစိုက် တန်ဖိုး ထားတတ်သည့် ထူးခြား ဝိသေသများ ရှိကြသူများ ဖြစ်ကြသည်။ ထို့ကြောင့် မြန်မာကွန်မြူနတီက မိခင်နိုင်ငံသားတို့၏ အခက်အခဲများကို ကောင်းစွာ ဖြေရှင်းပေးနေသည့် သတင်းအား ကြားသိရသော် လွန်စွာ ကြည်နူးပြီး အဖွဲ့ဝင်အဖြစ် ပါဝင်လာကြသလို ကွန်မြူနတီ၏ အဖွဲ့ဝင်အဖြစ် ပါဝင်လှုပ်ရှားခြင်းအပေါ်မှာလည်း ဂုဏ်ယူကြသည်။ ကွန်မြူနတီမှ ထိုသို့ ကြိုးပမ်းမှုဖြင့် အဖွဲ့သားများ တိုးပွားလာစေပြီး ကွန်မြူနတီလည်ပတ်ရန် လိုအပ်သည့် ဘဏ္ဍာရေးလည်း တည်ငြိမ်လာသည်။ ထိုမှတစ်ဆင့် အဖွဲ့ဝင်များထဲမှ တာဝန်ခံအားအလုပ်ခန့်ကာ မြန်မာနိုင်ငံသား ရွှေ့ပြောင်းသူများ၏ အခက်အခဲများကိုလည်း ပိုမိုထိရောက်စွာ ကူညီနိုင်ရန် ကြိုးပမ်းလျှက်ရှိသည်။

ကွန်မြူနတီသည် ကုသိုလ်ဖြစ် လှုပ်ရှားသည့် အဖွဲ့ဝင်များဖြင့်သာ ဖွဲ့စည်းထားပါက ရေရှည်တည်တန့် ရန် ခက်ခဲသည်။ မိခင်နိုင်ငံသားများ အခက်အခဲကို လျှင်မြန်စွာ ဖြေရှင်းပေးနိုင်တဲ့ စနစ်ကို ကျင့်သုံးမှသာ အဖွဲ့အစည်း ရေရှည် ရပ်တည်နိုင်မည်ဖြစ်သည်။ ထို့ပြင် ကွန်မြူနတီသည် အဖွဲ့ဝင်မဟုတ်သော ပြင်ပထောက်ပံ့မှုများအပေါ် အလုံးစုံ မှီခိုရန် မသင့်။ ကွန်မြူနတီအား အဖွဲ့ဝင်များ၏ ခွန်အားဖြင့် တည်ဆောက်ကာ အဖွဲ့ဝင်များအနေဖြင့်

ကွန်မြူနစ်အား မိမိတို့ ကိုယ်ပိုင်အဖြစ် ခံယူကာ ကွန်မြူနစ်တိုးတက်စေရန်အတွက် ပုံစံမျိုးစုံဖြင့် ထောက်ပံ့ခြင်းနှင့် ပူးပေါင်းပါဝင်ကြသည့် အနေအထားကို ဖန်တီးနိုင်ရန် ကြိုးစားရမည်ဟု မိမိခံယူသည်။

အထက်ပါအတိုင်း မြန်မာရွှေ့ပြောင်းသူတို့ကဲ့သို့ ထူးခြား ဝိသေသကို ပိုင်ဆိုင်ကြသော ရွှေ့ပြောင်းသူနိုင်ငံများလည်း ရှိကြမည် ဖြစ်သည်။ ဥပမာ ဖိလစ်ပိုင်ရွှေ့ပြောင်းသူများသည် စုဝေးပြီး ပါတီလုပ်ရတာ သဘောကျသည်ကို ကောင်းစွာသိသော ဖိလစ်ပိုင်ခေါင်းဆောင်က မကြာခင်က ပါတီဖွင့်ပေးပြီး လူစုကာ ဖိလစ်ပိုင်ကွန်မြူနစ်ကို ဖွဲ့စည်း တည်ထောင်နိုင်ခဲ့သော အကြောင်းအရာလည်း ရှိခဲ့သည်။ ထိုကဲ့သို့ ရွှေ့ပြောင်းသူများကိုယ်တိုင် ကွန်မြူနစ်တွင် ပါဝင်မှုဖြင့် ရွှေ့ပြောင်းသူလူမှုအသိုက်အဝန်းကို ပိုမို၍ လန်းဆန်းတက်ကြွလာအောင် ဖန်တီးနိုင်သည်။ ထို့ပြင် ကွန်မြူနစ်ခေါင်းဆောင်များသည် မိခင်နိုင်ငံသားများမှ ကွန်မြူနစ်၏ လှုပ်ရှားမှုများကို ကောင်းစွာသိရှိပြီး ကွန်မြူနစ်အဖွဲ့ဝင်အဖြစ် ပါဝင်ခြင်းသည် လွန်စွာ ဂုဏ်ယူဖွယ်ကောင်းသည်ဟု ခံစားအောင် ပြုလုပ်ပေးသည့် တာဝန်၊ ကွန်မြူနစ်နှင့် ဒေသခံများ သီးခြားမဖြစ်အောင် ဒေသတွင်းပြည်သူများ နှင့်အတူ ပူးပေါင်းဆောင်ရွက်သည့် လှုပ်ရှားမှုများကို ဖန်တီးပေးသည့် တာဝန်၊ တခြား ရွှေ့ပြောင်းသူကွန်မြူနစ်များနှင့် ပူးပေါင်း ဆောင်ရွက်သည့် တာဝန်များကို ကောင်းစွာ ထမ်းဆောင်နိုင်ရမည်ဖြစ်သည်။

နောက်ဆုံးအနေဖြင့် ကိုရီးယားနှင့် ဂျပန်သည် အာရှရွှေ့ပြောင်းသူများ သွားရောက်လိုသော ဦးစားပေး နိုင်ငံများဖြစ်သည်။ လက်ရှိ ရွှေ့ပြောင်းသူများနေထိုင်နေသော တခြား အာရှနိုင်ငံများနှင့် နှိုင်းယှဉ်သော် ရွှေ့ပြောင်းသူတို့အတွက် ပံ့ပိုးရေးပေါ်လစီ၊ လစာ၊ ဥပဒေဖြင့် ကာကွယ်မှု စသည်တို့ ပိုမို သာလွန်သောကြောင့်ဖြစ်သည်။ ဒီ ပရောဂျက်မှတစ်ဆင့် တွေ့ရှိရသော နှစ်နိုင်ငံတွင်းရှိ ရွှေ့ပြောင်းသူများအား ဘေးဖယ်ခြင်း၊ ကန့်သတ်ချုပ်ချယ်ခြင်း စနစ်များကို ဖယ်ရှားပြီး နားလည်မှုနှင့် စာနာမှုကို အခြေခံသော စနစ်များကို ကျင့်သုံးပေးပါက ရွှေ့ပြောင်းသူများ ကဲ့သို့သော အင်အားနည်း လူနည်းစုများသည်လည်း မိမိတို့၏ ကိုယ်ပိုင်အိမ်မက်အား လွတ်လပ်စွာ လက်တွေ့ အကောင်အထည်ဖော်နိုင်မည့် အခွင့်အလမ်းများ ရရှိလာကြမည်ဖြစ်ပြီး ထိုသို့သော အခွင့်အရေးများကို လမ်းဆင့်ပေးသည့် နိုင်ငံသည်လည်း ရွှေ့ပြောင်းသူတို့ ရင်ဝယ် အစဉ်အမြဲ ကျေးဇူးတင်နေမည့် နိုင်ငံများဖြစ်ကြမည်ဟု ယုံကြည်မိသည်။

## 한일 양국 이주민과 이주민 공동체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

주한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  
소모두

### 1. 일본의 이주자 정책과 이주자 공동체의 모습

한일 양국의 이주자교류프로젝트를 통해 한일 양국이 이주노동자를 ‘꼭’ 필요로 하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정부도 이주민에게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나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만큼 이주민의 필요성을 느끼며 이주민과 함께 하는 미래를 위해 준비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일본에서 나와 비슷한 삶을 지내고 있는 난민분들과 이야기를 해 보니 역시 정착한 나라가 달라도 이주민의 고통, 어려움, 정부의 배타적 성향은 같다는 것을 느꼈다. 지원정책들이

실행되고 있음에도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이주민에 대한 정책이 폐쇄적이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한국에서 활동해 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의 이주민 운동을 바라보니, 일본 사회의 지원 활동은 매우 다양한 반면 이주민 당사자 운동 즉 이주민 공동체들의 활동이 미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매우 아쉬웠다. 일본에서 이주민과 함께 하는 사회를 위해 이주민이 지원만 받는 대상이 아니라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의 역할도 맡아 나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렸으면 하는 기대를 해 본다.

## 2. 새로운 과제에 대한 인식과 도전

일본 시찰 중에 방문했던 네팔학교, 브라질학교는 이주민들의 주도 하에 훌륭하게 운영되고 있어 매우 인상적이었다. 특히 네팔학교 같은 경우 네팔 외에 세워진 첫 네팔 학교이며 법률이 없어서 인정받기까지 2년이 걸렸지만 네팔 리더들의 꾸준한 노력 속에서 일본에 거주하는 수많은 네팔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네팔의 정규교육과정을 졸업한 것과 같기에 편입시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나이에 따라 학년도 배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 즉 네팔 아이들은 부모를 따라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더라도 네팔에 있는 학교에 갈 수 있고, 일본에서 네팔 학교 외의 학교에 다닌다 해도 편입학 가능하기에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

네팔학교 운영방식을 보며 한국에 정착한 미얀마 난민 가족들의 아이들 교육을 생각해 봤다. 현재 아이들은 오직 한국 아이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똑같은 교육을 받는 선택지밖에 없다. 또한 부모들은 맞벌이로 밤낮없이 일하고 있어서 아이들과 같이 지내는 시간이 너무 적다. 그렇기에 아이들은 한국인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이 더 많아 한국 아이들과 다를 바 없지만 고국 미얀마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많다.

하지만 미얀마 공동체 간부들은 아이들의 이러한 상황을 당연한 일로 생각한다. 나는 일본에서 본 네팔학교 운영방식을 공동체 대표들과 논의를 해 보았지만 역시 재정이 가장 어렵다는 것에서 논의가 멈췄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 선택권과 거주 선택권을 위해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한편 일본 방문을 통해 만났던 미얀마 출신 이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 내 이주민들의 삶보다 일본 내 이주민의 삶이 더 괜찮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노동 권리 보장에 대해 일본은 한국보다 좀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정부가 폐쇄적인 정책을 조금 더 수정해 나간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더 진전되어 일본 내 이주민의 삶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져본다.

하지만 일본 사회에서는 미등록 이주민이 모든 면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일본에서 방문했던 모든 기관들이 거의 미등록 이주자에 대해 즉 이들의 존재에 대해 아무 지원이나 관심이 없는 듯 보였다. 한 국가의 상황을 짧은 시간 내에 평가하기에는 실례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경제의 밑바닥을 묵묵히 책임지고 있는 미등록 이주자를 포용하는 지원이 있는 일본 사회를 바라 본다.



### 3. 교류를 미래를 향한 지속적인 이어짐으로

이주민 활동, 공동체 활동과 관련하여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한 한국 내 여러 나라 이주민 대표들과 더 가까워지면서 이주민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더 알 수 있었고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주민 대표들은 이주 노동자, 이주 여성, 이주 아동, 난민, 이주 사업가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공동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황당한 사례들, 개선해야 할 상황들, 터져 나오는 제도적인 불만들을 서로 나누면서 전반적인 이주민들의 상황도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공동체 대표로서 겪고 있는 문제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었다. 다른 이주민들보다 한국어, 한국 문화, 한국 정서에 익숙해진 공동체 대표들마저 피할 수 없는 현실과 맞지 않는 한국 정부의 통제적 이주민 제도에 대해 우리는 함께 답답함을 느꼈다.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앞으로도 한국 내 이주민 공동체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와 같은 다양한 이주민들 관련 고민 거리들을 서로 공유하고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답을 찾아서 시민사회단체들과 힘을 합쳐 한국사회에 호소하며 이주민들이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한국사회를 만들어가는 방안도 찾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일본측 이주민들, 이주민 대표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일본에서 자국 이주민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접하였으며 네팔학교와 브라질학교 방문시 봤던 교육활동에서는 크게 감동받고 배움을 얻었다. 그런 학교를 졸업한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향후 이주민들에게 필요한 활동에 관심있게 참여하면 좋겠다는 기대도 해 본다.

타국 땅에서 낯선 환경에 장기적으로 지내야 하는 이주민들에게는 특히 알 권리가 매우 중요하다. 모르기에 본인의 권리를 잃은 이주민들을 한국에서도 많이 볼 수 있었다. 이주자 공동체의 리더들은 언어적 장벽으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같은 출신국 이주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활동에 이주민 학교를 졸업한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더 나아가 프로젝트를 통해 만나게 된 공동체들의 네트워크가 한일 양국의 이주민 공동체들의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살려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4. 인정 속에서 가능한 이주민 공동체의 안정적인 활동

한일 두 나라의 이주 정책들, 이주민들의 이야기들을 배워가면서 이주 운동에 공통된 어려움과 해결해 나가야 할 것들과 각 나라의 미래와 관련되어 예상되는 이주 정책들과 관련하여 나 자신이 이주민 활동가로서 앞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다. 특히 이주민 당사자 운동의 중요성, 이주민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 개선의 필요성 등, 이주민 커뮤니티의 활동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었다.

나는 이주민 공동체가 지역 사회와 분리되어 활동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지역사회와 연결되어서 함께 활동해야 공동체가 개선될 수 있다고 믿으며 실제로도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 한의원, 의사, 노무사, 변호사, 경찰 등과 관계를 가지며 미얀마 공동체와 함께하는 활동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미얀마 공동체가 주도해 진행해 온 공동체 회원들 모여 동네 청소하기, 경찰들과 함께 치안봉사단 만들기, 노무사와 함께 노동상담, 의사들과 함께 진료 활동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한편 이주민들에게 자국 공동체는 생명줄과 같은 존재이기에 공동체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즉 공동체가 이주민들의 생명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주민 공동체들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재정적 어려움이 가장 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얀마 공동체에서는 미얀마 출신 이주자들이 공동체에 가입해 정기적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공동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공동체가 자국민들의 어려움을 활발하게 해결할수록 공동체 회원 모집도 잘 되기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동체가 자국민의 어려움을 잘 해결 해준 사례들을 꾸준히 올리며 공동체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 한다. 이와 함께 미얀마인들은 자비, 기부, 도덕 등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기에 공동체가 자국민의 어려움을 잘 해결해 주고 있다는 소식에 기뻐하며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기도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회원들도 많아져 재정도 어느 정도 안정되었고 다음 단계로 공동체 회원 중에서 상근자를 채용하여 미얀마출신 이주자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 노력하고 있다. 결국 공동체는 무료로 봉사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어서는 오래 유지되지 못하며 출신국 이주자들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해 나가야 조직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도 공동체가 외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만들어 그 공동체를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여기며 공동체에 여러 형태로 참가, 참여해 나가려는 당사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미얀마 이주민들의 특색과 다른 특색들이 이주민의 출신국마다 있을 것이다. 필리핀 이주민들이 모여서 파티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점을 잘 아는 필리핀 리더가 파티를 자주 열어 자국민들을 모아 필리핀 공동체 결성까지 이루어 낸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이주민 당사자들이 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이주민 사회를 더욱 활기있게 만들어 갈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 리더들은 자국민들이 공동체의 활동들을 잘 알고 공동체 회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역할, 공동체가 지역과 분리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과의 교류 활동을 만들어가는 역할, 다른 이주민 공동체들과 연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의 이주자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표적인 나라이다. 현재 이주민이 생활하고 있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이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 임금, 법적 보호 등이 더 낫다는 점이 이유라 하겠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발견한 한일 양국에 존재하는 이주민에 대한 배타와 통제들을 제거하고 이해와 배려에 바탕을 둔 정책들이 전개될 수 있다면 이주민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있는 고마운 나라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 Meaning of Mutual Exchange

Seulgi Kang

Uijeongbu 「EXODUS」

## 1. Difference over Migrants between Korea and Japan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Japan is that Japan has a background of local government system that attempts diverse policies on migrants. Korea has a central-driven government system; however, the system is for the management controls on migrants rather than respecting the diversity of migrants. The number of migrants has been rapidly increasing and shows the diverse diversity in identity: a disabled refugee, a working international marriage woman, a LGBTQ migrant worker, an undocumented migrant child, etc. Migrants have the intersectionality of identity but the current system on migrant doesn't consider it. The system allows them to live only as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ir visa status that is given.

Comparing the situation of Korea with Japan, I was able to observe how the various local government system of Japan approaches in a very sensitive way when they deal with migrants. It gave me a good grasp of new approaches. In the future Korean government should also consider in making migration policy to emphasize the role and importance of local government with the participation of not only the local government but also civil society and migrants' communities. If they do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with its various resources, the quality of policy will be different. Also,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resident's association for migrants should be extended so that they can take part in policy decision and implementation. It will give support not only for the migrants' rights but also for the development of the whole community. By the way, in the dictionary, 'resident' means a person who has an address within the jurisdiction of local government. Regardless of nationality and visa status, if a person has an address, it becomes a question mark whether it is still necessary to divide between a native and a migrant.

The second difference is that the history of young people with migration background has been long since it became an issue in Japanese society. Also, diverse programs and activities take place at the various layers of the society. The issues like the sense of identity and belonging of the second generations with migration background

are being said in front of the public. And it was very impressive that the people themselves with migration background lead their own gatherings and activities.

I was able to learn different programs for young people with migration background in Japan. However, unfortunately, I couldn't see the any written policy for them. Japan must already have various attempts of experiences of attempts in multicultural situations having Korean residents in Japan, Ainu tribes, Brazilian immigrants and so on. Of course, it will be easier to mention about the nationality or social welfare system including social insurance, public aid and social services, but it is needed necessary to contemplate whether it is possible to express a person's identity and belonging into a policy. However, I do believe that it is still possible to make a policy that provides an environment where a person can live with his/her whole identity and not being excluded from a society with the identity. Maybe as the an alternative, The Hate Speech Act in Japan can be the starting point for making those environments. In Korea The Equality Act has not been legislated for over 10 years. Although Even if The Equality Act will be legislated, all the discrimination and hate in our daily lives will not disappear; but it will become a trigger letting people know what discrimination and hate are. With this background, we can build a society where the diversity is recognized and hold held in respect. That is why the legislation of The Hate Speech Act in Japan gives is of a great significance to us.

## **2. Understanding and Learning**

The most meaningful part for me from of this project was the meeting with people with migration background like Brazilian community, JFC, etc. The understanding and learning through meeting them brought me a change. I have realized that even just knowing the existence of people who have a similar background with me gives a comfort and cheer in life. The networking I experienced in Japan encouraged me and to shared some ideas and to organize a meeting for people who have the issues on identity and belonging.

Also, I have come to know realize again that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establishing migrant community come in various ways. In my field I have hoped that migrant communities will have a strong voice and speak it out to achieve a change for in migrants' rights. However, I realized even the hope I had was coming from the idea that migrants are the people who are in need. I felt ashamed about it and reflected on myself. The important things are whether an environment is given where anyone can raise their voices freely and whether people around are also ready to listen to the voice.

Through meeting different communities in Korea and Japan, I have started thinking on who the person is directly concerned in migration movement. Today some conflicts are coming up to the surface between migrant activist and native activist in Korea. And it makes me to think how Japan with its long history of migration movement considers who the person is directly concerned or involved. I do think that we are all migrants and

all people are directly concerned in migration movement. But I hope to have an opportunity to share different ideas about it.

### 3. My Issues and Reflection from now on

I have started the a meeting for people who have issues on identity and belonging in Korean society. the The first meeting took place in July, 2019 and the second meeting is scheduled in November, 2019. It is still on theat a starting stage and I'm working on the contents and tools based on what I have felt and experienced from the network in Japan. I will keep my concern focus and reflection on young people with migration background in my activities and migration field from now on. At last I will continue my work hoping that somehow my concern and reflection will do much to help in the process of changing the society where anyone can live as the way as they are.

## 교류의 의미란

의정부EXDOS  
강슬기

### 1. 한일이주자교류사업 참가를 통해- 새로운 관점의 발견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는 일본의 지방자치제라는 배경과 그에 따른 다양한 정책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국은 중앙정부 주도형으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주민의 다양성을 존중하기보다 관리와 통제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주민은 늘어나고 있으며 다양한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다. 장애를 가진 난민, 노동을 하는 결혼이주여성, 성소수자인 이주노동자, 미등록 이주아동 등 정체성은 교차되어 나타나는데, 현재 한국의 이주민 정책은 이러한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주어진 체류자격의 목적으로만 살아가게끔 한다.

프로젝트를 통해 접한 일본의 이주민을 둘러싼 상황과 활동을 바탕으로 이러한 한국의 상황과 비교하여 봤을 때, 지방자치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일본의 정책 속에서 이주민에게 세심하게 접근하는 일본의 자세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다른 접근 방식들을 배울 수 있었다.

특히 이주민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 앞으로는 한국도 중앙정부 주도형에서 벗어나 지방정부, 시민사회, 이주민 공동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활성화 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다면 이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정책의 질은 다를 것이라고 본다. 또한 기존의 주민자치회와 같은 위원회에 더 많은 이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이주자가 정책 결정과

집행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런 방향은 이주민뿐만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발전에 힘을 보탬 것이다. 사전에서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를 뜻한다. 지역 내에 거주한다면 국적, 체류자격 상관없이 결국 선주민과 이주민의 구분 또한 필요 없는 것이 아닐까?

두 번째 차이는 일본에는 이주배경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고민이 오래되었고 다양한 층에서 다양한 형태로 여러가지 프로그램과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주배경 2세들의 정체성, 소속감과 같은 이슈들이 대중 앞에서 이야기되고,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직접 모임을 운영하며 활동을 이어가는 모습이 매우 인상깊었다.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이주배경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배울 수 있었지만 아쉽게도 이들을 위한 문서로 된 직접적인 정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일본은 이미 재일조선인, 아이누민족, 브라질 이민자 등 다문화적 상황에서 다양한 시도들의 경험을 갖고 있을 것이다. 물론 국적이나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한 사회복지제도에 대해서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 사람의 정체성과 소속감에 대해 정책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 사람이 어떠한 사회에서든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정체성을 갖고, 나의 정체성으로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정책대안으로 일본의 혐오표현금지법이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국은 차별금지법이 십년이 넘게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하여 일상에서의 차별과 혐오가 사라지지 않겠지만 무엇이 차별이고 혐오인지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한 바탕 위에 다양성이 받아들여지고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본에서 혐오표현금지법이 제정된 것은 큰 의미를 준다.

## 2. 공감과 배움

나 자신에게 있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가장 큰 변화를 있게 해준 것은 브라질공동체, JFC 등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한 공감과 배움이었다. 나와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있음을 아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삶을 살아가는 데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다. 일본에서 보고 느낀 네트워킹으로 한국에서 정체성과 소속감에 고민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이끌어갈 용기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이주민 공동체가 생겨나는 배경과 목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이주민센터에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이주민 공동체가 변화를 위한 자신의 목소리를 강하게 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왔다. 하지만 이 역시 이주민은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라는 생각에서 가졌음을 반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는지, 주변 사람들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도 함께 고민해야 함을 배웠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과 일본의 다양한 공동체를 만나면서 이주운동에서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선주민 활동가와 이주민 활동가 사이에 갈등을 발견하는 요즘, 더 오랜 이주운동의 역사를 가진 일본에서는 ‘당사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게 되었다. 우리는 모두 이주민이고 모두가 당사자라고 생각하지만 더욱 다양한 의견을 듣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를 바란다.

### 3. 앞으로의 고민과 성찰

프로젝트에 멤버로 참가해 한국의 이주민 커뮤니티를 접하면서, 일본의 다양한 활동을 접하면서 느끼고 가지게 된 용기로 한국 사회에서 정체성과 소속감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시작했다. 2019년 7월 첫 모임을 가졌고 11월에 두 번째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아직 시작하는 단계에 있지만 내가 일본에서의 네트워킹을 통해 느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모임내용과 진행방식을 만들어가는 중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의 활동 안에 이주배경 청소년, 청년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가져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 나의 고민과 성찰이 어떠한 방식으로 든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나의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 कोरिया-जापान आप्रवासीहरूको वर्तमान अवस्था तथा भविष्य

एनसिसि कोरिया, एनआरएनए कोरिया  
के. पि. सिटौला

### १. कोरिया-जापान आप्रवासी समुदायविच पारस्परिक आदानप्रदानले देखाएको जापान

प्रोजेक्ट शुरूहुनु अघि आप्रवासीहरूको इतिहासजस्ता विविध कुराहरूमा जापान कोरियाभन्दा निकै अघि रहेको छ भन्ने लागेको थियो । प्रोजेक्टमा भाग लिंदै गरेका सदस्यहरूको पृष्ठभूमिमा पनि विविधता देखिएकोले केहि अपेक्षा गर्न सकियो । २ वर्षको प्रोजेक्टबाट जापानको आप्रवासी सदस्य तथा जापानका विभिन्न संस्था, विद्यालय, नगर तथा गाउँहरूको अवलोकन गरि जापानका आप्रवासी सम्बन्धि इतिहास थोरै भएपनि बुझ्न सकियो । सर्वप्रथम, कोरियामा विविध धरातलका आप्रवासीहरूको सङ्ख्यामा वृद्धि भएको कुरालाई मध्यनजर गर्दा बसोबासको अवस्था (भिसा) व्यवस्थापनमा कडाइका साथ नियमन गरेको पाइएको तर जापानमा भने कुनै भिसामा आश्रित परिवार सदस्य तथा विदेशीको हकमा रोजगार स्वतन्त्रता बढी नै रहेको पाइयो । त्यसैगरि स्थानिय सरकारद्वारा आप्रवासीहरूलाई प्रदान गरिने सेवा सुविधामा बसोबासको अवस्थामा आधारित नभइ विभिन्न आप्रवासीहरू केन्द्रित रहेको पाइयो ।

यसको विपरित कोरियामा बहुसाँस्कृतिक निति लागु गर्दै बसोबास गर्ने आप्रवासीहरूलाई “बहुसाँस्कृतिक” तथा बहुसाँस्कृतिकमा नपर्ने सामान्य आप्रवासी भनि दुइ प्रकारमा बिभाजन गरि त्यसै अनुसार पाउने अनुदान तथा लाभमा फरक पर्ने देखिन्छ । जापानको आप्रवासीहरूको अवस्था तथा गतिविधिको पृष्ठभूमि हेरी कोरियाको अवस्थसँग तुलना गर्ने हो भने जापानको स्थानिय सरकारले अवलम्बन गरेको नीति जस्तै वास्तविकतामा आधारित नीति कोरियामा पनि आवश्यक रहेको देखिन्छ ।

### २. प्रवासी समुदायमा केन्द्रित बालबालिका शिक्षा

बालबालिका शिक्षा सम्बन्धि समस्याका कारण कोरियामा स्थाइ बसोबास गर्न नसकेका अभिभावकहरूको तर्फबाट धेरै नै चिन्ता ब्यक्त गरिएको र यस पटकको प्रोजेक्टबाट आप्रवासी समुदायलाई मध्यनजर गरि विद्यालय स्थापना गर्नुपर्ने कुरामा थप केन्द्रित हुनुपर्ने देखिन्छ ।

यस अर्थमा नेपाली समुदाय केन्द्रित रहि स्थापना गरिएको र सन्चालनरत एभरेष्ट इन्टरनेशनल स्कुल जापानको सन्चालन कार्यविधि तथा पाठ्यक्रमका बारेमा अध्ययन गरियो । कोरियामा जापानको एभरेष्ट इन्टरनेशनल स्कुल जत्तिको विद्यालय सन्चालन गर्न पाठ्यक्रम, भाषा तथा



परिवारसंख्या बढि भएका क्षेत्र तथा उपयुक्त विद्यार्थी छनौट त्यति सजिलो देखिंदैन । उदाहरणका लागि कोरियामा छोटो समयका लागि बसोबास गर्ने अभिभावकले अन्य देशमा स्थानान्तर हुने विचार भएमा त्यस्ता अभिभावकका बालबालिकाहरू कोरियन पाठ्यक्रममा आधारित विद्यालयमा पठाउन वा कोरियामा रहेका महंगा अन्तराष्ट्रिय अंग्रेजी विद्यालयमा पठाउन पनि कठिन देखिन्छ ।

त्यसैले कोरियन विद्यालय तथा अन्तराष्ट्रिय विद्यालयको विचमा हुने गरिएका सामुदायिक विद्यालय स्थापना गर्न सकिएमा विद्यार्थी, कर्मचारि लगायतका विभिन्न समुदायका मानिसहरू कोरियामा लामो समय बसोबास गर्न सक्ने बाटो खुला हुने थियो । कोरियाको वास्तविकता मध्यनजर गर्दा जापान भ्रमणमा अवलोकन गरेको माद्यामिक विद्यालय तथा ब्राजिल विद्यालय प्रभावकारि मोडेलको रूपमा हेर्न सकिन्छ ।

हाल, कोरियामा परिवारको रूपमा बसोबासरत प्रवासीहरू सिओल केन्द्रित बसोबासमा नरहेको तथा सिओलमा विद्यालय स्थापना गर्ने भए पनि अन्य क्षेत्रबाट विद्यालय जान त्यति सजिलो देखिन्न र छात्रावासको समेत प्रबन्ध मिलाउनु पर्ने भएकोले यो कार्य जटिल देखिन्छ ।

त्यसैले नेपाली बालबालिकाहरूकै लागि मात्र विद्यालय स्थापना गर्न कठिन भएकाले, भारत, पाकिस्तान, बंगलादेश जस्ता छिमेकी देशका बालबालिकाहरूलाई समेत हुने गरि विद्यालय स्थापना सम्भव देखिन्छ तर पाठ्यक्रमको थप समस्या रहिरहन्छ ।

बालबालिकाहरूको शैक्षिक समस्या समाधान नभएको वर्तमान परिवेशमा कोरियामा जन्मिएका नेपाली बालबालिकाहरू मध्ये करिब ७० देखि ८० प्रतिशत अभिभावकबाट अलग रहि नेपालमा नै शिक्षा तथा हेरचाह गर्नु पर्ने बाध्यात्मक तथा कारुणिक अवस्था छ ।

माथिका कुराहरू मध्यनजर गरी जापानको ब्राजिल विद्यालयमा चिली, ब्राजिल तथा छिमेकि राष्ट्रहरूका बालबालिकारू सँगै पठनपाठन गराइएको हेर्दा छिमेकि देशका समुदायलाई सँगै लिएर जाने तरिका पनि समाधानको एउटा महत्वपूर्ण उपाय हुनसक्छ ।

### ३. फरक वातावरणमा कार्यरत दुइ देशका प्रवासी समुह

कोरियामा प्रत्येक देशका समुदायहरू अति नै धेरै छन् । कोरियामा रहेका नेपाली प्रवासीहरूको कुरा गर्ने हो भने हरेक राजनैतिक दलका छाता संगठन, क्षेत्र, धर्म, संस्कृति, खेल इत्यादि विविधहरूको जमघट रहेको पाइन्छ भने आ-आफ्नै तरिकाले समस्या समाधानका लागि सेल्टर सञ्चालन, प्रायोजन आदि कार्यहरू राम्रोसँग गरेतापनि धेरै नै छरिएर रहि एकजुट हुन नसक्ने समस्या रहेको छ ।

यस अर्थमा जापानमा कार्यरत रहेका विभिन्न देशका समुदायले के कसरि कार्यक्रमहरू सञ्चालन गरिरहेका छन् भनि अध्ययन गर्न सकेको भए राम्रो हुने थियो ।

अन्ततोगत्वा प्रत्येक समुदायको जमघट, समुदाय हरेकको कार्यले पनि महत्व राखे भएता पनि त्यस्ता विविधता संस्कृति, पर्व इत्यादि कार्यक्रमहरू स्थानिय स्वदेशी तथा प्रवासीहरू सबै मिलेर एक अर्काको संस्कृति बुझ्ने महत्वपूर्ण मौका हुने भएकोले सँगै बसोबास रहेका स्थानियहरूको सोचाइ परिवर्तनमा सहयोग पुऱ्याउने खालका योजनाहरू आवश्यक देखिन्छ । एकातिर कोरिया वा जापानमा स्थानान्तर हुन एशियाका धेरै युवा युवतीहरू भाषा सिक्ने, भाषा परिक्षामा भाग लिने जस्ता आर्थिक तथा मानसिक क्रियाकलापहरू गरेका हुन्छन ।

आफ्नो देशमा रहंदा हेरेका ड्रामा, कोरियालि वेभ तथा छिमेकीले कमाइ ल्याएको पैसा हेरि प्रवेश गरेता पनि आफ्नो देशमा कुनै श्रम नगरेका युवा युवतीहरू फरक वातावरणमा अभ्यस्त हुन निकै कठिन हुन्छ ।

यिनिहरू कोरिया, जापानका समाजमा पूर्ण रूपले अभ्यस्त हुने गरि अग्रिम शिक्षा तथा अनुभव साटासाट गर्ने महत्वपूर्ण भूमिकामा दुइ देशका समुदाय रहन सक्दछन । त्यस्तै, जापानले कोरियाको इपिएस प्रणालीमा ध्यानाकर्षण भइ नयां प्रकारको विदेशी भित्र्याउने नीति अवलम्बन गर्न लागेको कुरा हेर्दा कोरिया जापानका एनजिओ तथा प्रवासी समुदायहरू इपिएस प्रणालीले ल्याएका समस्याहरू इडगीत गर्दै एक कदम उचाइमा पुग्ने खालका बातावरण बनाउन एकसाथ प्रयास गर्ने र समस्या समाधानमा भूमिका निर्वाह गर्न सक्नेछन ।

#### ४. भविष्यका लागि तयारी तथा प्रवासी समुदायको भूमिका

प्रवासी जीवन एकैपटक एउटै कार्यकालमा सकिदैन । कोरियाको इपिएसकै बारेमा भन्नुपर्दा करिब ५ वर्ष जति प्रवासी श्रमिकको रूपमा रहेर जम्मा गरेको पैसाले कसरि हुन्छ पुनः कोरियामा नबसी नेपालमै परिवारसँग बस्न सकिन्छ भनि सोच्नुपर्ने अवस्था छ ।

उदाहरणका लागि प्रवासमा रही कमाएर पठाएको सबै पैसा बचत गर्ने हो भने पुनः कोरियामा प्रवासी जीवन व्यतित नगरे पनि हुन्छ । तर कमाएको पैसा मध्ये पहिल्यै आधा भन्दा बढि घरखर्चमा प्रयोग भैसक्ने भएकोले बाँकि पैसाले जग्गा जमिन किनेर घर बनाउन र थप बचतका लागि पुनः प्रवासी जीवन विताउनु पर्ने हुन्छ ।

यसको मतलब पटक पटक विदेशीनु र प्रवासी जीवन व्यतित गर्न रोक्न सक्ने साना काम भए पनि शुरू गरिहाल्न कोरिया जापानका समुदायहरू एक भएर केन्द्रित हुनुपर्ने देखिन्छ । यसैगरि नयां वातावरण, श्रमका कारण युवा युवतीहरूको आत्महत्या तथा औद्योगिक दुर्घटना इत्यादि रोक्नमा पनि प्रवासी समुदायले महत्वपूर्ण भूमिका निर्वाह गर्न सक्छ ।

कोरियाको सन्दर्भमा भन्नुपर्दा प्राय जसो प्रवासी समुदायहरूले आफ्नै देशका मानिसहरूका लागि साँस्कृतिक जमघटमा केन्द्रित भएको देखिन्छ । तर सामुदायिक कार्यहरू सिमित नहुने गरि आउंदा दिनहरूमा प्रत्यक्ष गर्न सक्ने कार्यहरू समुदायले सम्पादन गरि, नसक्ने कार्यहरू भए

कोरियन समाज वा जापानिज समाजले मध्यस्थता गरी सगै गरिरहेको अनुभव हुने गरी अगि बढ्नु पर्ने देखिन्छ । प्रवासी समुदायका कार्य क्षेत्रमा पनि वृद्धि गर्दै सामाजिक सेवा तथा प्रायोजन, सामाजिक रूपले पिछडिएकाहरूका लागि गर्नुपर्ने कार्यक्रममा वृद्धि गर्नु पर्ने देखिन्छ ।

अन्त्यमा, हालका विकासशील देशहरू सधैं सोहि रूपमा नरहने हुनाले प्रवासीहरूले आफ्नो प्रवासी जीवनमा जम्मा गरेको धन सम्पत्ति तथा प्राविधिक ज्ञान इत्यादिको प्रयोग गरि मातृभूमिमा सामुहिक लगानी गर्न तथा मातृभूमिको औद्योगिक क्षमता वृद्धि गर्दै विदेशी मुद्रा आर्जन गरि मातृभूमिको विकाशमा टेवा पुर्‍याउन सक्ने विश्वास दिलाउने कुरामा प्रत्येक प्रवासी समुदायको महत्वपूर्ण भूमिका रहने छ ।

## 한일 양국 이주민의 현실과 미래

재한네पाल인공동체NCC/주한네पाल인협회NRNA

케이피 시토올라

### 1. 한일 이주민 공동체 교류가 보여준 일본과 한국에의 시사점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주민의 역사 등 여러 가지로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을 것이라는 생각뿐이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멤버들의 백그라운드도 다양해 기대 또한 컸다. 2년여간의 프로젝트를 통해 일본의 이주자 멤버 뿐 아니라 일본의 다양한 기관, 학교, 마을을 시찰하면서 일본의 이주민 정착 역사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먼저 한국이 다양한 형태의 이주민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해 체류자격별로 체류를 통제, 관리하는 성격이 강한데 반해 일본의 경우 체류 자격에 따라야 하는 가족 동반 그리고 외국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은 조금 더 개방되어 있는 것 같다고 느꼈다. 또한 지방자치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주민 지원도 체류자격에 바탕을 둔 구별이 아니라 다양하게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해 실시되고 있다고 느껴졌다.

반면에 한국은 다문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거주하는 이주민을 "다문화" 와 다문화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이주민 두 가지로 구분하여 거기에 따라 국가 지원과 혜택들이 달라진다. 일본의 이주민을 둘러싼 상황과 활동을 바탕으로 이러한 한국의 상황과 비교하여 봤을 때, 지방자치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일본의 정책을 참고하여 한국에서도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2. 이주자 커뮤니티가 중심이 된 아이들의 교육

아이들의 교육의 문제로 한국에 정착하지 못하는 부모들의 입장에 대해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나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이주민 커뮤니티가 바탕이 되어 설립된 학교와 실질적 학교 운영이 중요한 관심사였다. 그런 의미에서 네팔 커뮤니티가 중심이 되어 설립, 운영하고 있는

에베레스트 인터내셔널 저팬의 운영 방침과 커리큘럼을 자세히 살펴 보았다.

한국에서 일본의 에베레스트 저팬 정도의 학교를 운영하기에는 교육 과정, 언어, 그리고 가족이 밀집된 지역과 적절한 학생 모집 등 쉽지 않아 보인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단기체류하거나 부모가 다른 나라로의 이주를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한국의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한 학교에 보내기도, 비용이 비싼 대부분의 국제학교에 보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에 한국 학교와 국제학교의 중간 정도에 민간학교를 만들 수가 있다면 유학생, 외교관 등 다양한 타입의 가정들이 한국에서 장기체류라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 생각해 본다.

이러한 한국의 현실을 보았을 때 일본에서 방문한 고등학교와 브라질학교가 인상적인 모델로 생각되었다. 현재 한국에서 가족 단위로 거주하는 네팔 이주자 가족의 경우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 학교를 만든다 해도 지방에서 학교에 다니기는 쉬운 일이 아니며 기숙사까지 마련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팔출신 아이들만으로는 학교 운영이 어려운 현실에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의 주변국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일정한 규모를 만들어 내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커리큘럼 등 풀어야할 문제들이 매우 많다. 아이들의 학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네팔 아이들 중 약 70~80% 는 부모와 떨어져 부모의 고향에서 생활해야 하는 가슴 아픈 현실이 있다. 일본의 브라질 학교에서 페루, 브라질 등 주변 국가 출신 아동들도 함께 교육하는 모습에서 이웃국가 커뮤니티와 연대해 나가는 방법이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느꼈다.

### 3. 다른 환경에서 활동중인 양국의 이주민 단체들

한국에는 각 나라별 모임이나 공동체가 너무나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한국의 네팔 이주민의 경우에는 각 정당 산하 단체, 지역, 종교 문화 스포츠 등의 다양한 모임들이 있으며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쉼터 운영, 후원 마련 등의 활동을 잘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고 화합이 잘 안되는 문제들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에서 활동 중인 각 나라별 공동체의 구체적으로 활동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느낀다. 결국 이주자들의 모임과 공동체는 각자의 활동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각 나라의 문화 또는 축제 등의 행사들을 선주민과 다른 이주민과 함께하여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함으로써 같이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의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한국이나 일본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아시아의 많은 젊은이들이 언어도 배우고 시험준비를 하는 등 적지 않은 비용과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입국을 하게 된다. 본국에서 봤던 드라마나 한류 열풍 그리고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돈을 잘 벌어서 온다는 것만 믿고 입국하지만 본국에서 아무 노동 경험 없는 젊은이들이 다른 환경에서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젊은이들이 한국, 일본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이나 경험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양국의 이주자 공동체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일본이 한국의 고용허가제 대해 관심이 많고 새로운 형태의 외국인 도입제도를 시행하였다는 점에서 한일 양국의 NGO와 이주자 공동체가 고용허가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까지 공유하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노동 환경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도 앞으로 발생할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다.

#### 4. 미래에 대한 준비와 이주자 커뮤니티의 역할

현재 이주 생활은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있다.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의 경우 고용허가제가 규정한 약 5년 동안 이주노동자로 생활하면서 모은 돈으로 무엇을 해야 다시 이주하지 않고 본국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을까라는 큰 고민 거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예를 들어 이주 기간 동안 벌어서 보낸 돈을 다 적금한 사람은 그 돈으로 뭔가를 시작하여 다시 이주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 반면 벌은 돈 중 이미 절반 정도를 생활비로 사용하였기에 남은 돈으로 땅을 마련한 후 집을 짓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이주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즉 다시 이주한다고 하는 반복된 이주 생활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일 양국의 이주자 공동체가 작은 일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생각하는 등 공통적으로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낮은 환경, 노동으로 늘어나는 젊이들의 자살 그리고 산재 사망 등도 이주자 공동체가 캠페인 등을 통해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이주자 공동체들이 자국민을 상대로만 문화행사 등 모임을 가진다. 하지만 공동체 활동이 한정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공동체가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은 직접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한국 사회 또는 일본 사회와 협력하면서 같이 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주자 공동체의 활동을 다양화 해 나감으로써 사회봉사 및 후원 등을 통해 다른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도 전개해 나가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현재 개발대상국들이 언제나 개발대상국으로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주자들도 이주 기간 동안 모은 자산이나 기술과 지식 등을 활용해 본국에 공동 투자를 하는 등 자국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자신들의 경험과 노력이 모국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키워 나가는 것도 각각의 이주자 공동체가 맡아야 할 몫,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 Hoạt động của Hội Người Việt và phương hướng hỗ trợ người dân di trú ở hai quốc gia Nhật Bản và Hàn Quốc trong tương lai

Nguyễn Ngọc Cẩm

Chủ tịch Hội Người Việt Nam tại Hàn Quốc

## 1. Hiện trạng của người dân di trú và những hỗ trợ cần thiết

Khác với Hàn Quốc, ở Nhật Bản các vấn đề về người nước ngoài được giải quyết theo hình thức không được nhận bất kỳ hỗ trợ nào từ chính phủ trung ương mà chỉ được nhận những hỗ trợ riêng lẻ từ các cơ quan hành chính địa phương và dường như ở mỗi địa phương tùy vào quốc tịch của người dân di trú và đặc điểm đặc trưng của từng quốc gia đó mà các chương trình đa văn hóa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ở các địa phương cũng khác nhau. Nếu như chương trình đa văn hóa ở Hàn Quốc gần như là được tiến hành theo cùng một phương thức thì ở Nhật Bản tùy thuộc vào độ nhận thức và sự tiếp nhận về vấn đề đa văn hóa của các cơ quan hành chính ở địa phương mà chính sách thực thi cũng khác nhau tùy theo từng địa phương, mức độ hỗ trợ và chất lượng do đó cũng có sự khác biệt ít nhiều.

Nhưng do không có ngân sách hỗ trợ nên chủ yếu phải sử dụng tình nguyện viên, thì điểm này có sự giống nhau giữa các địa phương ở Nhật. Do vậy chỉ có thể hỗ trợ sinh hoạt hay phúc lợi xã hội trong cuộc sống thường nhật như hỗ trợ cung cấp thông tin, dịch vụ, tư vấn, thông biên dịch, giáo dục tiếng Nhật, v.v. còn các vấn đề liên quan về bảo vệ quyền lợi, ngăn chặn tình trạng phân biệt đối xử đối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dường như còn nhiều hạn chế, cụ thể như về việc hỗ trợ tư vấn, thông biên dịch không phải được thực hiện mỗi ngày mà sẽ được ấn định 2 ngày mỗi tuần. Do đó, dẫn đến việc khi có trường hợp cần được hỗ trợ khẩn cấp, không được hỗ trợ ngay lập tức khi cần thiết mà phải chờ đến ngày có người tư vấn làm việc, tôi thiết nghĩ là cần tìm phương án để giải quyết tình trạng này.

Tôi lại nhớ về trường hợp của người phụ nữ Thái Lan là diễn giả trong “Diễn đàn toàn quốc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2019” thông qua chuyến thị sát Nhật Bản vừa qua. Cô bị người chồng bạo hành nhiều lần, đã yêu cầu cảnh sát giúp đỡ nhưng ngược lại cảnh sát đã không giúp đỡ mà còn đứng về phía người chồng, đến bây giờ cảnh tượng ấy vẫn còn như tái hiện trước mắt tôi, tôi cảm nhận về tình trạng nghiêm trọng của việc phân biệt

đối xử và tình trạng yếu kém trong việc hỗ trợ người nước ngoài. Nếu như ở Hàn Quốc, trong những trường hợp bị bạo lực gia đình, thì người bị hại có thể gọi đến đường dây nóng (hotline) hay trung tâm bảo vệ nhân quyền phụ nữ di trú của Hàn quốc, trung tâm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v.v . Nhằm giúp đỡ người bị hại trong các vụ việc bị bạo hành gia đình, thông qua các trung tâm hỗ trợ trên toàn Hàn Quốc, người bị hại có thể yêu cầu hỗ trợ hoặc tư vấn. Trong trường hợp ly hôn, trung tâm sẽ có những hỗ trợ về pháp luật, vấn đề gia hạn visa, việc nhập học của con cái.v.v. đặc biệt, đối với những trường hợp bị bạo hành gia đình thì chính phủ cũng có những chương trình đào tạo cho nạn nhân có thể tự lập sau ly hôn.

Thế nhưng, ở Nhật, người phụ nữ Thái Lan này đã không được nhận bất kỳ hỗ trợ nào từ xã hội, mà bản thân cô đã phải tự cô gắng vượt qua mọi khó khăn, thử thách, tự học tiếng Nhật, học và thi bằng lái xe, và bản thân cô đã tự mở một trung tâm tư vấn hỗ trợ đa văn hóa, ngoài việc giúp đỡ bản thân vượt qua nghịch cảnh, cô còn giúp đỡ những người có cùng hoàn cảnh như mình. Đó quả thật là một câu chuyện cảm động, nhưng ở một khía cạnh khác, ở xã hội Nhật Bản, mặc dù vấn đề bạo hành gia đình là vấn đề của xã hội nhưng hiện tại vẫn chỉ được xem là vấn đề cá nhân, và đối tượng phụ nữ di trú không thể nhận được bất kỳ hỗ trợ và sự bảo vệ từ pháp luật, xã hội, bản thân nạn nhân phải tự mình bảo vệ mình và tìm cách giải quyết vấn đề của mình. Do đây chỉ là một mẫu chuyện của cá nhân nên không thể đưa ra nhìn nhận hay đánh giá về tình trạng chung ở xã hội Nhật Bản, nhưng ở một góc độ nào đó đã cho chúng ta có cái nhìn thực tế về mức độ hỗ trợ dành cho người di trú của chính phủ Nhật Bản.

Mặt khác, ở Hàn Quốc, với đối tượng là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thì có trung tâm hỗ trợ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với phụ nữ kết hôn nhập cư thì có trung tâm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du học sinh thì được đào tạo ngôn ngữ ở trường, tư vấn hỗ trợ, v.v. tùy theo tư cách cư trú mà được đào tạo ở những trung tâm khác nhau. Do đó, cơ hội để các khối đặc thù trong cộng đồng người nước ngoài không có nhiều cơ hội gặp gỡ, giao lưu và kết bạn. Bên cạnh đó, việc tập trung người nước ngoài theo tư cách vi sa để đào tạo riêng lẻ ở các trung tâm khác nhau dẫn đến việc hạn chế sự tiếp xúc với người bản địa (người Hàn Quốc), do đó người dân nhập cư không cảm nhận được mình là thành viên của xã hội đó, và vì cơ hội giao lưu, tiếp xúc không nhiều, nên vấn đề cải thiện về nhận thức đối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của người dân bản địa cũng bị hạn chế. Thông qua chương trình của dự án, tôi đã có cơ hội được đi đến các địa phương, và tôi nghĩ rằng việc chính phủ Nhật Bản đã không phân loại riêng biệt ra từng loại visa,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đã tạo nên những chương trình có cả sự tham gia của người di trú và người dân bản địa, tạo ra nhiều cơ hội tiếp xúc giữa họ với nhau, do đó, người nước ngoài có cảm giác như mình là một phần của xã hội. Tôi nghĩ rằng nếu như ở Hàn Quốc, các trung tâm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trung tâm hỗ trợ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không phân biệt theo nhóm người nhập cư, và cũng đừng tách biệt để hỗ trợ theo từng tư cách cư trú, thay vào đó, ở mỗi ủy ban nhân dân địa phương, lập thêm trung tâm hỗ trợ người nước ngoài kèm theo, và người

dân nhập cư không phân biệt tư cách cư trú, sẽ được đào tạo ngôn ngữ, các chương trình tìm hiểu văn hóa nước sở tại, tư vấn.v.v. Đồng thời tiến hành song song các chương trình dành cho người nhập cư và người bản địa cùng tham gia để tạo cơ hội cho họ giao lưu gặp gỡ, nâng cao hiểu biết về nhau.

## **2. Hiện trạng của cộng đồng người Việt ở Nhật Bản và Hàn Quốc và các hoạt động trong tương lai**

Thông qua chương trình, tôi đã có dịp tiếp xúc với cộng đồng người Việt Nam tại Nhật Bản, tôi đã hơi có chút bất ngờ vì số lượng người Việt Nam hiện đang sống tại Nhật Bản nhiều hơn hẳn so với ở Hàn Quốc. Có một hiện thực đặc biệt ấn tượng cho tôi đó là có 4 ngôi chùa Việt Nam ở Nhật Bản trở thành địa điểm chính của cộng đồng người Việt tại đây. Các ngôi chùa Việt Nam này không chỉ đóng vai trò là nơi an ủi dành cho người di cư khi họ cần được động viên về tinh thần khi họ gặp vấn đề trong cuộc sống, mà các ngôi chùa này còn đóng vai trò là nơi hỗ trợ về tài chính trong các trường hợp người di cư gặp các vấn đề về bệnh tật, tai nạn lao động dẫn đến tử vong thì cộng đồng phật tử nơi đây sẽ mở cuộc quyên góp tiền làm lễ tang hay đưa thi hài về cố hương.

Cộng đồng người Việt Nam tại Nhật đã và đang có những hoạt động như mở các lớp dạy nấu ăn cho người Nhật và người Việt để tạo quỹ học bổng hỗ trợ cho trẻ em vùng sâu, vùng xa của Việt Nam, tham gia các lễ hội văn hóa để thúc đẩy giao lưu văn hóa, mở hội chợ việc làm để tạo quỹ hoạt động, tư vấn sinh hoạt đời sống, sức khỏe, pháp luật cho người Việt nhập cư, đưa người Việt Nam sang Nhật xuất khẩu lao động, hoạt động giao lưu giữa các chuyên gia, chia sẻ thông tin qua mạng, giao lưu sinh hoạt cộng đồng tôn giáo như đạo tinh lành, đạo thiên chúa v.v. các hoạt động đa dạng của nhóm người và đoàn thể được mở rộng khắp đất nước Nhật.

Ở một mặt khác, tôi nhận thấy mặc dù có nhiều nhóm nhỏ hoạt động ở khắp nơi, tuy nhiên các hội nhóm này không có sự liên kết và không có các nhóm hỗ trợ cho người lao động Việt Nam. Có nghĩa là các lĩnh vực hoạt động chủ yếu tập trung vào giao lưu văn hóa hay thông tin cuộc sống, còn các vấn đề như đề xuất về chính sách, tăng cường quyền lợi cho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cải thiện tình trạng xâm phạm nhân quyền, đòi hỏi quyền lợi cho người di trú hay các hoạt động nói lên tiếng nói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rong vai trò là thành phần trong xã hội Nhật Bản thì vẫn chưa thực hiện được. Qua chuyến gặp gỡ tại các trung tâm giao lưu văn hóa, nhà hỗ trợ đa văn hóa, v.v. ở nhiều khu vực mà tôi đã ghé thăm, nhiều nơi tôi vẫn không tìm thấy những dấu tích hoạt động của cộng đồng người Việt ở những địa điểm tôi đã từng đến.

Nhưng dạo gần đây, tôi cũng được biết là cộng đồng người Việt tại Nhật Bản đã có những bước chuyển mình mới. Hệ thống nhập cư người nước ngoài của Nhật Bản, tuy chính phủ ký kết các biên bản hợp tác giữa các quốc gia, tuy nhiên vấn đề tuyển chọn, nhập cảnh và quản lý người lao động được thực hiện thông qua các hợp đồng ký kết với



các công ty tư nhân của hai quốc gia. Hội Người Việt Nam tại Nhật Bản hiện cũng đang dự kiến đưa ra mô hình quản lý nhân lực phù hợp với mô hình của chính phủ Nhật Bản. Thông qua việc đưa người sang lao động và quản lý nguồn lao động, hoạt động bán sim, card điện thoại, tạo ra nguồn doanh thu từ các hoạt động này hội Người Việt cũng có kế hoạch dùng vào việc vận hành hội và giúp đỡ cho các trường hợp gặp khó khăn trong cộng đồng người Việt tại Nhật.

Nói về vấn đề của Hội người Việt Nam tại Hàn Quốc, thì vấn đề khó khăn nhất đó là vấn đề về tài chính. Hiện tại hội không hoạt động vì lợi nhuận, nhưng lại tổ chức nhiều hoạt động như hội thao, lễ hội văn hóa. v.v. nguồn tài chính không có, cũng không nhận được bất kỳ nguồn hỗ trợ tài chính từ chính phủ, do đó, khi thực hiện các hoạt động này đều phải xin tài trợ từ các doanh nghiệp Hàn Quốc, đây là một điều khó khăn nhất.

Ngoài ra, hội Người Việt Nam tại Hàn Quốc chủ yếu bao gồm 3 khối cơ bản, đó là khối người lao động, khối phụ nữ di trú, khối du học sinh, các hoạt động doanh nghiệp Việt Nam chưa phát triển nhiều, mới bắt đầu hoạt động gần đây nên còn yếu. Do đó, khi tổ chức các sự kiện liên quan đến Việt Nam, đều rất vất vả để xin tài trợ từ các doanh nghiệp Hàn Quốc. Hiện tại, Hội Người Việt Nam tại Hàn Quốc cố gắng tìm các phương án gây lợi nhuận phù hợp như hội người Việt Nam ở Nhật Bản để có thể tự lực về tài chính.

Hội người Việt Nam tại Hàn Quốc và Nhật Bản, để có thể cải thiện tình trạng hiện tại và hoạt động độc lập, cần phải trăn trở nhiều hơn đến việc đảm bảo về vấn đề tài chính. Tôi hy vọng là hội Người Việt Nam tại Hàn Quốc và hội người Việt Nam tại Nhật Bản sẽ có nhiều hoạt động giao lưu hơn nữa trong tương lai.

## 한일 양국의 앞으로 이주민 지원방향과 베트남 교민 활동

주한베트남교민회

원옥금

### 1. 이주자의 현실과 필요한 지원

일본은 한국과 달리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재량으로 지원하는 식으로 외국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한편, 지역마다 거주하는 외국인의 국적이나 특성에 따라 다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같다. 한국의 다문화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거의 똑같이 진행되는 방식과 달리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다문화 인식, 수용도에 따라 시책이 달리 전개되기에 프로그램이 지역마다 다르고 지원의 양과 질도 다른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산이 별로 없다 보니 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공통점이 있고, 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일상적 서비스와 정보 제공, 상담, 통번역, 일본어 교육 등 생활·복지 관련 지원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권리 보호와 구제, 차별 방지 등 운동적 지원은 제공되지 않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또한 이주민에 대한 상담, 통번역도 매일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한 언어가 1주일에 2일로 한정적이며 통역 봉사인력을 활용하기에 그때 그때 도움이 필요한 이주민이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리라 생각된다.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도 바로 구제받지 못하고 상담 및 통역하는 날까지 기다려야 하는 현재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이 요구되어지는 것은 아닐까.

일본 방문프로그램 중에 발제자로 참석한 한 포럼에서 이주민으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한 태국 출신 이주여성이 생각한다.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피해 경찰의 도움을 요청해도 제대로 된 대응을 받지 못하고 경찰이 남편의 편을 들었다고 말하는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르며 일본의 이주민 지원의 열악함, 차별의 심각함을 느꼈다. 한국에서는 이런 폭행 같은 경우는 HOTLINE 이나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국 쉼터를 통해 상담이나 대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쉼터에서 이혼시 필요한 법적 지원, 체류자격 연장, 자녀 취학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을 당한 결혼여성의 자립과 양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하지만 이 태국 출신 이주여성은 일본의 사회 시스템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일본어를 배우고 운전 면허증을 따는 등 자립을 위해 노력했으며 다문화상담센터까지 만들어 활동하는 등 자기 문제를 스스로 극복한 후 다른 사람을 돕고 있다고 한다. 감동적인 얘기지만 한편으로 일본에서는 가정 폭력 문제가 사회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인 문제로 취급되어 이주민들이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는 이야기는 하나의 사례라 전반적 상황을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일본의 이주자 지원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한편 한국에서는 외국인을 노동자의 경우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결혼이주여성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유학생은 학교에서 언어 교육, 상담 지원 등을 개별적으로 운영하기에 이주민들간의 만남과 교류의 기회가 많지 않다. 또한 외국인만을 모아 “조기정착교육”을 시키는 구조 속에서 이주민은 한국인 주민들과 접촉하고 교류할 기회가 없어 한국 사회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며 선주민과 교류가 적다 보니 다문화 인식 개선 등이 진전되지 않아 사회통합에 저해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프로젝트를 통해 방문한 일본의 선진적 지자체가 외국인을 체류자격에 따라 구별하지 않고 세밀하게 지원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과 교류할 기회를 만듦으로써 이주민이 사회적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점이 좋다고 느꼈다. 한국에서도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같이 외국인을 구별해 각각 별도로 지원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처럼 주민센터에 외국인주민부서를 개설하여 언어 교육, 상담과 함께 한국인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된다.

## 2. 한국과 일본의 베트남 공동체의 현재와 앞으로의 활동

프로젝트를 통해 일본의 베트남 공동체를 접하게 되면서 일본에 한국보다 훨씬 많은 베트남출신 이주민이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 조금 놀랐다. 특히 인상적인 사실은 일본에 4개 있는 베트남 사찰이 교민사회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베트남 사찰은 일본에서 힘든 일을 당했을 때와

같이 심적인 위로를 받기 위해 오는 베트남 출신 이주민의 안식처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질병이나 산재사고로 사망하게 된 베트남 출신 이주자를 위한 장례비와 본국으로 시신 운송비를 마련하기 위해 불교 공동체가 모금을 해주는 역할도 담당한다고 한다.

일본의 베트남 공동체는 요리강좌나 페스티벌을 통한 문화교류 촉진, 생활·건강·법률분야의 상담, 취업박람회를 통한 베트남 이주자의 일본 취업 지원, 연구자를 중심으로 한 학술교류, 베트남 인력의 유입과 관리, 베트남의 현지 어린이를 위한 장학금 지원, 온라인을 통한 정보 공유, 천주교·기독교 등의 종교공동체 등 다양한 단체와 모임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일본의 베트남 이주민 사회를 접하면서 전반적으로 여러 작은 모임으로 활동을 많이 전개하고 있기는 하지만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모임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즉 활동 분야가 문화교류나 일상생활에 집중되어 있으며 아직은 정책 제안, 노동자 권리향상, 인권 침해 개선, 이주민의 권리와 요구 등 일본사회에서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내는 활동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방문프로그램에서 학교, 다문화교류센터 다문화공생 등 지역 사회의 여러 곳을 방문했지만 그곳에서 베트남출신 이주민이 활동하는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베트남 공동체의 새로운 움직임도 알게 되었다. 일본의 이주노동자 도입시스템은 국가끼리 협력각서(MOC)를 체결하기는 하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송출과 도입 관리는 양국의 민간 업체가 계약을 체결해 수행하고 있기에 주일베트남교민회도 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올바른 인력관리의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베트남출신 노동자의 도입과 관리활동과 함께 심카드 판매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교민회의 운영과 어려움에 처한 베트남 이주자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국의 베트남 공동체 특히 주한베트남교민회 활동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재정문제이다. 주한베트남교민회에서도 문화축제, 체육대회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수익활동을 하지 않기에 재정이 열악하다. 또한 한국의 베트남 교민들이 주로 노동자, 이주여성, 유학생으로 구성되어 있고 베트남 출신 기업가의 활동이 활발하지 않기에 한국 기업에 후원 요청을 하는 등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적인 문제, 사회적 인식 문제로 베트남 교민회가 일본의 교민회가 시도하고자 하는 것처럼 수익사업을 전개하기는 쉽지 않지만 공동체의 재정 자립을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한일 양국의 베트남 이주민 커뮤니티는 자립적인 활동과 이주자를 둘러싼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기반을 확보,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다. 통일적인 조직 하에 활동하는 한국의 베트남 공동체와 새로운 활동을 전개해 나가려는 일본의 베트남 공동체의 앞으로의 교류에 기대해 본다.



# 일본측 이주자 멤버의 보고

## မနက်ဖြန်တိုင်းရဲ့အားမာန်သစ်

Marip Seng Bu

NPO PEACE

### အဖွဲ့အစည်းစတင်တည်ထောင်ဖြစ်ပုံ

ကျွန်မဟာ၁၉၉၂ခုနှစ်မှာဂျပန်နိုင်ငံကိုနိုင်ငံကိုရောက်ရှိပြီးနိုင်ငံရေးခိုလှုံခဲ့ပါတယ်။ ကျွန်မကတော့မြန်မာနိုင်ငံသားကချင်လူမျိုးပါ။ ဂျပန်နိုင်ငံရောက်ရောက်ခြင်းစခရစ်ယာန်ဘာသာဝင်ဖြစ်တာကြောင့်ဘုရားကျောင်းတက်ရင်းဂျပန်လူမျိုးများနှင့်စတင်ခင်မင်ရင်းနှီးပြီးမိမိကချင်လူမျိုးများကိုမိမိတတ်နိုင်သလောက်ကူညီပံ့ပိုးခဲ့ပါတယ်။ ၂၀၀၃မှာတော့တစ်ဦးနှင့်တစ်ဦးဝိုင်းဝန်းကူညီရန်နှင့်ကချင်အမျိုးသားများစည်းလုံးညီညွတ်ပြီးမိမိကိုယ်တွင်မိမိရပ်တည်နိုင်ရန်အဖွဲ့စတင်ဖွဲ့စည်းခဲ့ပါသည်။ နောက်ပိုင်းမှာတော့ကော်မြူနီတီကိုဝိုင်းဝန်းတည်ထောင်ခဲ့ပါတယ်။ ၂၀၁၀မှာတော့မိမိတို့ဂျပန်နိုင်ငံမှာရှိတဲ့တစ်ကြိမ်ဆဲကော်မြူနီတီများနှင့်ပူးပေါင်းကာRefugee Coordination Committee Japan (RCCJ)ကိုတည်ထောင်ခဲ့ပါတယ်။

၂၀၁၂ခုနှစ်မှာတော့ဂျပန်နိုင်ငံမှာရောက်ရှိနေတဲ့တိုင်းရင်းသားခေါင်းဆောင်များနဲ့လက်တွဲပြီးဂျပန်လူမျိုးတာဝန်ရှိပုဂ္ဂိုလ်များနှင့်ပူးပေါင်းပြီးNPOPEACEအဖွဲ့အစည်းကိုတည်ထောင်ခဲ့တယ်။ ဂျပန်လူမျိုးများဝိုင်းဝန်းကူညီတဲ့တွက်အဲဒီအချိန်ကစပြီးတစ်ဖြည်းဖြည်းနဲ့ကျယ်ကျယ်ပြန့်ပြန့်လုပ်ဆောင်နိုင်ခဲ့ပါတယ်။ ၂၀၀၈ခုနှစ်မှာကိုယ်ပိုင်လုပ်ငန်းဖြစ်တဲ့အသားကင်ဆိုင် မန်မာစားသောက်ဆိုင် ကိုယ်ပိုင်အမှတ်တံဆိပ်အဝတ်အထည်လုပ်ငန်းကိုဂျပန်နိုင်ငံ၏နာမည်ကြီးကုန်တိုက်ကြီးများတွင်ရောင်းချနိုင်သည်အထိဂျပန်လူမျိုးများရဲ့အားပေးမှုနှင့်အင်မြင်မှုကိုရရှိခဲ့ပါသည်။

ဂျပန်နိုင်ငံဟာတစ်ကယ်ကြီးစားတဲ့လူတွေကိုမြေတောင်မြောက်ပြီးနေရာပေးတဲ့နိုင်ငံဖြစ်တယ်။ လက်ရှိမှာတော့NPO PEACEရဲ့ဦးဆောင်သူChief Directorအနေလည်းကောင်းကျွန်မနေထိုင်နေတဲ့ရှင်းဂျူကျမြို့နယ်မြို့နယ်ယဉ်ကျေးမှုဘက်စုံတိုးတက်ရေးပူးပေါင်းဆောင်ရွက်ရေးကော်မတီရဲ့အဖွဲ့ဝင်အဖြစ်နဲ့ရပ်တည်နေပါတယ်။

### ပျိုးထောင်ခြင်း ပံ့ပိုးကူညီခြင်း လက်တွဲခေါ်ယူခြင်း

ဂျပန်နိုင်ငံမှာနေထိုင်တဲ့နိုင်ငံခြားသားတစ်ယောက်အနေနဲ့အရေးကြီးဆုံးနဲ့အဓိကအချက်ကတော့ဂျပန်စာလေ့လာသင်ယူခြင်းလို့မြင်ပါတယ်။ ဒါပေမဲ့ဂျပန်မှာနေထိုင်တဲ့နိုင်ငံခြားသားများဟာဂျပန်ဘာသာစကားကိုလေ့လာသင်ယူဖို့အခွင့်အရေးနဲ့စနစ်မျိုးမရှိတာကိုတွေ့ရပါတယ်။

အခြားဒိန်းမတ် ဩစတေးလျနိုင်ငံတွေမှာတော့နိုင်ငံခြားသားတွေသူတို့နိုင်ငံရဲ့ဘာသာစကားကိုသင်ယူနိုင်ဖို့နိုင်ငံကနေကောင်းမွန်တဲ့စနစ်တွေသတ်မှတ်ပြီးထောက်ပံ့ပေးတာတွေ့ရပါတယ်။

နိုင်ငံခြားသားတွေအနေနဲ့ဂျပန်လူမှုအဖွဲ့အစည်းမှာရပ်တည်နေနိုင်ဖို့ဘာသာစကားကအဓိကကျတဲ့အချက်ဖြစ်တယ်

ဒါကြောင့်ဂျပန်နိုင်ငံမှာရောက်ရှိလာတဲ့မြန်မာနိုင်ငံသားတွေဂျပန်စာသင်ကြားနိုင်ဖို့ NPO PEACE အနေနဲ့ဂျပန်စာလေ့လာနိုင်မည့်အခွင့်အလမ်းတစ်ရပ်ကိုဖန်တီးခဲ့ပါတယ်။အောင်မြင်တဲ့အဖွဲ့အစည်းတစ်ခုဖြစ်ဖို့ဖွဲ့မလျော့ပဲအဓိကစဉ်ဆက်မပြတ်လုပ်ဆောင်ဖို့နဲ့ဂျပန်လူမှုအဖွဲ့အစည်းရဲ့အားပေးထောက်ပံ့ဖို့လိုအပ်ပါတယ်။တစ်နည်းအားဖြင့်နိုင်ငံခြားသားများဟာဂျပန်လူမှုအဖွဲ့အစည်းကိုအကျိုးပြုနိုင်တဲ့သူများဖြစ်လာအောင်ကြိုးစားရမှာဖြစ်သလိုဂျပန်လူမှုအဖွဲ့အစည်းအနေနဲ့ကလည်းနိုင်ငံခြားသားရယ်လို့မခွဲခြားပဲဘယ်နယ်ပယ်မှာမဆိုနွေးနွေးထွေးထွေးနဲ့ဂျပန်လူမျိုးတွေနဲ့တန်းသူလက်တွေ့ခေါ်ယူသင့်တယ်လို့ထင်ပါတယ်။

**ဆက်လက်လုပ်ဆောင်မည့်လှုပ်ရှားမှုအစီအစဉ်များ**

ဂျပန်မှာနေထိုင်တာ ၂၇နှစ်ရှိပါပြီ။ဂျပန်မှာနေထိုင်တဲ့နိုင်ငံခြားသားတွေအဆင်ပြေအောင်ကြိုးစားနေပါတယ်။ကျွန်မအနေနဲ့ဂျပန်နိုင်ငံမှာယခုထက်ကောင်းတဲ့ပိုမိုကောင်းမွန်တဲ့နိုင်ငံနိုင်ငံဖြစ်လာစေခြင်းဆန္ဒပြင်းထန်ပါတယ်။လက်ရှိအခြေအနေမှာဂျပန်နိုင်ငံဟာဂျပန်နိုင်ငံမှာနေထိုင်တဲ့နိုင်ငံခြားသားအရေးကိုကျယ်ကျယ်ပြန့်ပြန့်လုပ်ဆောင်တာမျိုးမတွေ့ရသေးပါဘူး။

များမကြာသေးမှီကိုးရီးယားနိုင်ငံမှာနေထိုင်တဲ့မြန်မာလူမျိုးများနဲ့ဆက်သွယ်ပြီးကိုးရီးယားနိုင်ငံရဲ့နိုင်ငံခြားသားပံ့ပိုးမှုညီမှုအခြေအနေကိုလေ့လာခွင့်ရရှိခဲ့ပါတယ်။တောင်ကိုးရီးယားရဲ့ကောင်းမွန်တဲ့စံနှစ်တွေဟာဂျပန်နိုင်ငံနိုင်ငံအနေနဲ့များစွာသင်ယူနိုင်မယ့်အချက်တွေလို့မြင်မိပါတယ်။

ကိုးရီးယားခရီးစဉ်ကိုအခြေပြုပြီးဂျပန်လူမျိုးတွေသာမကနိုင်ငံခြားသားများအနေနဲ့ပါဂျပန်နိုင်ငံမှာအေးချမ်းစွာနေထိုင်နိုင်ဖို့လိုအပ်တဲ့အဓိကအချက်တွေလုပ်ဆောင်သင့်တဲ့အချက်တွေကိုအကြံပြုပြောဆိုခြင်းပါပါတယ်။

နံပါတ်တစ်အချက်ကတော့နိုင်ငံခြားသားတွေကိုပြုစုပျိုးထောင်ဖို့ပါပဲ။ နိုင်ငံအနေနဲ့ရေရှည်ကိုစဉ်းစားပြီးနိုင်ငံခြားသားတွေများကိုလက်တွေ့ခေါ်ယူဖို့လိုအပ်ပါတယ်။ဥပမာအားဖြင့်ကျွန်မဟာဂျပန်မှာသားသမီးတွေကိုပြုစုပျိုးထောင်ဖို့ဆွေးနွေးတိုင်ပင်စရာနေရာမရှိခဲ့ပါဘူး။ဂျပန်ရောက်စကဂျပန်စာကိုသေသေချာချာလေ့လာသင်ယူနိုင်မည့်နေရာလည်းမရှိခဲ့ပါဘူး။

ဒါကြောင့်ပဲတောင်ကိုးရီးယားနိုင်ငံလူမှုဖူလုံရေးအဖွဲ့အစည်းရဲ့မိခင်နှင့်ခလေးစောင့်ရှောက်မှု၊မတူကွဲပြားတဲ့ယှဉ်ကျေးမှုကိုလေးစားတန်ဖိုးထားပြီးလက်တွေ့ခေါ်ယူမှုကိုအရမ်းပဲအားကျခွဲရပါတယ်။နိုင်ငံခြားသားဆိုတဲ့ခွဲခြားမှုမရှိပဲအပြန်အလှန်ပံ့ပိုးမှုနဲ့နားလည်မှုရှိဖို့လိုအပ်တယ်လို့ကျွန်မထင်ပါတယ်။

နံပါတ်နှစ်အချက်ကတော့ကိုးရီးယားနိုင်ငံမှာမြန်မာလူမျိုးများစုစည်းတည်ထောင်ထားတဲ့မြန်မာအလုပ်သမားလူမှုဖူလုံရေးစင်တာတည်ရှိပြီးဝိုင်းဝန်းကူညီကြပါတယ်။ဂျပန်နိုင်ငံမှာတော့ဒီလိုစင်တာနဲ့အဖွဲ့အစည်းမရှိတဲ့အတွက်ကြောင့်ကျွန်မတို့အဖွဲ့အစည်းများအနေနဲ့လုပ်နိုင်တဲ့အပိုင်းကနေစတင်ဖို့လိုအပ်ပါတယ်။ NPO PEACE အဖွဲ့အစည်းအနေနဲ့အလုပ်သင်သင်တန်းသားများကိုကူညီပံ့ပိုးနိုင်ဖို့စတင်ဆောင်ရွက်သွားခြင်းပါပါတယ်။အလုပ်သင်သင်တန်းသားများရောက်လာတဲ့အခါအစစအရာရာတိုင်ပင်ဆွေးနွေးမယ့်အဖွဲ့အစည်းအဖြစ်တည်ထောင်သွားခြင်းပါပါတယ်။

နံပါတ်သုံးအချက်ကတော့လူငယ်တွေအတွက်ပဲဖြစ်ပါတယ်။တောင်ကိုးရီးယားနိုင်ငံမှာဆိုရင်ပညာသင်ယူဖို့အခွင့်အရေးမရခဲ့တဲ့လူငယ်တွေအတွက်ပညာလေ့လာနိုင်ဖို့ Rainbow School ကကျောင်းဖွင့်လှစ်ပေးပါတယ်။ဒီကျောင်းကလူငယ်တွေကိုပညာသင်ယူနိုင်အောင်ပံ့ပိုးပေးပြီးပညာသင်ယူပြီးနောက်ပိုင်းအလုပ်အကိုင်ရရှိသည်အထိပန်းတိုင်ထိရောက်အောင်ကူညီလုပ်ဆောင်ပေးတာတွေမြင်ခဲ့ရတယ်။ဒါကြောင့် NPO PEACE ရဲ့ဂျပန်စာသင်တန်းကယခုနစ်မှာနှစ်မြောက်ခဲ့ပြီဖြစ်လို့ယခုအချိန်အထိဂျပန်စာကိုလေ့လာသင်ယူလာတဲ့လူငယ်တွေကိုအခြားအရည်အခြင်းစစ်စမ်းပွဲကိုဖြေဆိုစေပြီးဂျပန်နှင့်မြန်မာနိုင်ငံမှာရပ်တည်နေနိုင်အောင်ကြိုးစားသွားမှာဖြစ်တယ်။ဂျပန်အစိုးရအနေနဲ့ NPO, NGO အဖွဲ့အစည်းတွေကိုပံ့ပိုးမှုတွေလည်းအဓိကလိုအပ်ပါတယ်ဒါ့အပြင်တောင်ကိုးရီးယားနိုင်ငံလို့မျိုးလုပ်ငန်းရှင်များရဲ့ပူးပေါင်းပါဝင်မှုဟာလည်းအလွန်ပဲအရေးကြီးလှပါတယ်အစိုးရလုပ်ငန်းရှင်များနဲ့အဖွဲ့အစည်းအချိတ်အဆက်မိမိနဲ့ပူးပေါင်းဆောင်ရွက်

ပီးနိုင်ငံခြားသားများကိုဂျပန်လူမှုအဖွဲ့အစည်းမှာရပ်တည်နိုင်အောင်ကူညီပေးဖို့နဲ့ဂျပန်နိုင်ငံရဲ့မျိုးဆက်သစ်တွေအတွက်လည်းနိုင်ငံတစ်ကာနဲ့လက်တွဲပြီးနိုင်ငံအတွက်ကြိုးပမ်းနိုင်ဖို့အသိအမြင်တွေပေးဆပ်နိုင်မည့်ပညာရေးကိုလက်ဆင့်ကမ်းဖို့လိုအပ်ပါသည်။

## 내일을 향한 힘

특정비영리활동법인 PEACE

### 마립센부

#### 1. 「자립」과「이어짐」속에서

미얀마의 소수민족 카친족 출신인 나는 1992년 난민으로 일본에 왔다. 기독교 신자인 나는 일본에 온 후도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처음에는 일본인 목사와 협동하여 일본에 사는 카친족 지원 활동을 했다. 하지만 일본의 교회 공동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된 활동을 하기 위해서 2003년에 자조 단체를 조직하여 카친족 이주민의 지원을 시작하였고 2010년부터는 일본에 있는 난민들이 주체가 된 자조 조직인 난민연대위원회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리고 2012년에는 일본에서 살아가는 미얀마 소수민족의 공동체 리더들과 일본인과 함께 NPO법인 PEACE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단체 결성 과정에서 일본의 많은 응원자들을 만났고 다양한 분들의 협력으로 다양한 단체들과도 연대할 수 있었다. 또한 일본 시민들의 지원을 받아 1992년경 일본에 온 카친민족뿐만 아니라, 미얀마에서 온 다른 소수민족도 공동체를 결성하게 되었고 공동체 활동이 안정되게 되면서 정주자로서 일본에서의 생활기반 또한 구축되어 가고 있다.

한편 나 개인적으로도 주변 분들의 지원을 얻어 2008년에는 음식점과 부티끄를, 2011년에는 미얀마 소수민족 요리전문점을 개점할 수 있었다. 나아가 부티끄는 백화점 출점이 실현되는 등 일본에서 사업가로서의 도전도 이루어 낼 수 있었다.

일본에서 살아가면서 일본에는 진심으로 노력하는 사람을 응원하는 풍토가 있다고 느꼈다. 지금의 나는 이러한 주변의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나 또한 NPO법인 PEACE의 이사장으로서 신주쿠다문화공생마을만들기회의의 위원으로서, 「이주자의 정책제언」 프로젝트의 멤버로서 다양한 단체,사람들과의 이어짐 속에 있다.

#### 2. 과제해결에 필요한 「성장」, 「응원」, 「연대」

지금까지 이주자로서 살아오면서 가장 과제라 느낀 것은 일본어 습득이다. 나를 포함해 20, 30대에 일본에 온 이주자는 생활을 위해 일하지 않으면 안되기에 일본어 학습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 하지만 일본 사회에서 안정된 삶을 보내는 게 힘들었던 내 자신의 경험을

봐도 외국인이 일본에 온 후 바로 일본어를 배울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덴마크, 호주 등의 경우 이주 후 바로 정부의 지원 하에 그 나라의 언어를 공부할 수 있다고 하니 그러한 제도가 참고가 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이주자가 일본사회와 연대할 기회가 압도적으로 적다는 것도 과제라 하겠다. 사회와의 접점이 결여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겠다. 그러기에 NPO법인 PEACE의 주요 사업인 일본어 교실에서는 공동체 일원과 일본어학교 선생님이 힘을 합쳐 배움을 위한 장소를 만들어 왔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 일본사회와의 연대의 중요성과 효과를 실감하고 있다.

과제 해결에 필요한 것은 이주자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일본 사회가 다양한 방면에서 「응원하는」 것, 아울러 이주자 공동체와 일본사회가 「연대하는」 것이다. 즉, 이주자가 일본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이주자 자신이 「자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그들이 성장하기를, 육성되기를 바란다」고 생각하는 일본인의 존재가 불가결하다. 그러기에 더욱 더 일본 사회가 이주자를 따뜻하게 받아들이 주기를 바란다. 이는 결국 직장을 비롯해 여러 상황, 장면에서 이주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일본인과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기도 하다.

### 3.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도전

일본에 산지 27년, 현재 이주자 공동체에는 다음 세대를 짊어질 청년들의 참가도 눈에 띈다. 일본 사회로부터 많은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며 그렇기에 나는 일본이 보다 더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강하다. 하지만 현실에 시선을 돌리면 정부를 비롯해 외국인·이주자 정책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은 여전히 많지 않다고 느낀다.

한편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에 살아가는 이주자와 교류하며 한국의 상황을 직접 보게 되면서 많은 배움과 앞으로의 활동의 시사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정비해 온 이주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과 사회통합사업은 일본 사회에게도 이주자와 이주자 공동체에게도 많은 시사가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평화와 발전을 소중히 하면서 일본이 일본인뿐만 아니라 이주자에게 있어서도 보다 살기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새로운 시점, 활동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외국인을 「육성한다」는 자세이다.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는 물과 함께 충분한 환경이 중요하듯이 인간도 그러하다. 정부와 사회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을 「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키워간다는 관점을 가지고 이주자와 마주 봐야 한다. 예를 들어, 네 아이의 어머니인 나는 일본 사회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처음에는 주변에 고민이나 어려움을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 또한 일본에 온 이후 배움의 기회를 제대로 얻을 수 없었다. 그렇기에 한국의 지역종합사회복지센터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협력하여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함께 걸어간다는 관점에서 부모와 아이들의 지원활동을 전개하는 것에 매우 공감했다. 앞으로 이러한 관점에 서서 외국인·일본인이라는 구별에 바탕을 두지 않는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 하겠다. 이는 이주자가 능력을 발휘하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체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이주자 자신들의 활동이다. 한국에는 재한미얀마인들이 자립하여 연대하면서



「재한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라는 자조적 조직을 설립했다. 일본에는 그러한 센터가 아직 없지만 새로 이주해 온 사람들을 위해 앞으로 공동체 리더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또한 그러한 활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 NPO법인 PEACE와 같이 조직 기반을 가진 등록 단체의 역할이 크다고 하겠다. 조직 기반을 가진 단체로서 「특정기능」, 「기능실습」 등의 형태로 일본에 오는 신규 이주자를 지원하는 활동을 가능한 곳부터 시작하려 한다. 새로 이주해 온 이주자들이 언제든지 들 수 있는 상담 창구를 개설한다거나, 단체에서 고용한 직원이 그들의 요구에 대처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겠다. 일본에서 오래 살아온 선배로서 일본 사회와 주일미얀마대사관과 연대하면서 재일미얀마인들의 생활에서 나오는 요구, 요청에 대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셋째 희박해지기 쉬운 청소년 지원이다. 한국에는 Rainbow School이라는 시스템이 있어 교육의 기회가 충분하지 않은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해 교육적 지원을 하며 그들이 자신들의 목표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지원하기도 한다. 청년들이 자립하여 생활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스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NPO법인 PEACE의 일본어 교실이 올해로 6년째에 접어들었기에 지금까지 공부해 온 아이들이 배움을 살려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하여 일본과 미얀마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청소년들의 노력을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해 보고 싶다.

이를 위해서도 정부의 NPO·NGO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한국에서 전개되고 있듯이 기업과의 연대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한 경우 일본의 기업이 이주자 단체에 기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체와 연대해 기업의 임직원과 그 가족들이 외국인·이주자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자의 요구에 기업 관계자들이 협력하면서 함께 만들어 가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 이주자와 함께 살아가게 될 사회를 구성하는 성원이자, 앞으로 일본을 짊어지게 될 존재인 일본의 청소년들이 마음을 열고 이웃 국가들과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는 교육 또한 요구된다 하겠다.

# Learn from and Celebrate Our Differences

Rey Ventura

## 1. Introduction

I've been living in Japan since 2001. In my first three years, while learning basic Japanese, I was doing volunteer work. Mainly, I was translating Japanese texts into Tagalog for a community newsletter. At present, I still do various types of volunteer activities for non-profit organizations.

The four-day trip to South Korea gave new perspectives on how migrant workers are organizing themselves and how various organizations are helping them. It also provided an opportunity to be acquainted on how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dealing with various issues related to migration and social integration.

As a journalist and a community volunteer in Yokohama, I would like to make the following observations, comparisons, and recommendations.

## 2. The Strength of Migrant Communities

Currently, there are about 30,000 migrant workers from Myanmar in South Korea. After over twenty years of existence and struggles in Korea, the Myanmar Workers Welfare Centre was born in 2019. Now, they have an organization of their own.

In Korea, it seemed the civil society and the government have a strong support for foreign workers' activities and welfare.

There is no Filipino Workers Welfare Centre in Japan; none during the Bubble Years; none during the Heisei Period; none at present. We, Filipinos, salute the Myanmar workers in Korea. For assistance, consultation, and advice, Filipino workers in Japan rely on various non-profit organizations, volunteer groups, family members, personal friends, and the church. Generally, we do not seek help from our embassy nor go to the local government office.

Myanmar Workers Welfare Centre is an inspiration for Filipinos in Japan – that it's never too late to build our own organization; it gives the Filipinos a good example of how to be independent.

Recently, Filipino organizations have started to appear all over Japan. However, their

nature is usually informal and temporary. In the future, it would be nice to invite Myanmar migrant workers in Korea to share their experiences to groups of Filipino migrant workers in Japan.

Another thing, in the future, it would be nice observe migrant workers at work in South Korea.

### **3. Grasping and tackling diversity: differences and commonalities between Japanese and Korean experience**

During our visit to Guro, one of the twenty-five wards of Seoul (with 430,000 residents, 11.4% of whom are foreigners, mostly Chinese, including Korean-Chinese working in the service industry), we were able to observe the efforts of some local educators.

Due to the large presence of foreign migrant workers in this particular region, issues concerning multiculturalism, diversity, and social integration are inevitable.

Harmonizing different cultures, ethnic communities and groups' interests require a delicate balancing act. And women are playing a crucial role. Women, I believe, are inherently better at handling delicate and complex social issues; they are more sensitive and broad-minded; they have deeper understanding and higher tolerance threshold.

In Japan, many people involved in multicultural activities and diversity issues are women. In my limited experience, a lot of active leaders in the fields of social integration and minority issues have always been women. If there is one thing in common between Japan and Korea that I have discovered, it is the fact that women are at the forefront of supporting migrant workers' struggles.

On the other hand, one of the ideas that sprang out in our visit to a middle school was about 'learning from differences.' The presence of 2.3 million foreign residents and migrant workers in a country with population over fifty three million and with a long history of homogeneity and insularity is bound to create some kind of friction. Uttered by a responsible educator, 'learning from differences' is a powerful statement.

The middle school promotes diversity and social integration. You could see it on the signs outside the classrooms: "Multicultural Office," "Multicultural Harmony Classroom," "Create your vision." You could see it expressed on the painted walls and beams in different hues and colours. You could feel it in the images, drawings, and quotations on the walls; you could see it in the brightly-painted tables and chairs.

The school has even hired a full time Chinese female teacher. The school, visually, is not monotonous; it is colourful. It's promotes multiculturalism and harmony.

Generally, public schools in Japan have one colour. The middle school we had visited may be exceptional; but one thing I learned from this visit was -- actual visual diversity may encourage real social diversity.

#### **4. The need for migrant social integration programs**

In South Korea, courses on Korean language, culture, and society are held free of charge for foreigners and naturalized citizens. Curriculums have very detailed contents and teachers have high qualifications.

In Korea, I felt, there is a strong sense of government responsibility. Many organizations are funded by the government or subsidized or sanctioned. There is also a strong sense of legislation—activities are done based on laws and mandate. Decision-making seemed to be faster.

In Japan, I learned basic Japanese attending classes managed by volunteers—lady volunteers. I couldn't afford to go to a language school; much more, I didn't have the luxury of time. During my early years in Japan, I had never heard of free language classes offered officially by the city or town government. Most of the organizations were voluntary in nature; however, they might have been funded, partly, by the government. Recently, however, free Japanese language courses have been offered by government-related institutions.

As a long-time resident in Japan, I'd like to continue my Japanese language education. One of my options is to continue going to volunteer language class. Because it's free, the quality of teaching is average. Free language schools for migrant workers and long-term residents are very few. South Korea's KIIP (Korean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should be replicated in Japan. I definitely would enrol.

#### **5. Vocational skills for the youth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

At Rainbow Youth Centre in Korea, a young girl with long hair and brown complexion stands behind the coffee machine. She makes latte.

“Hi,” I said. “Do you work here?”

“I'm a student,” she says. “I want to be a barista.”

“That's nice,” I say. “Where are you from?”

“I'm from Saudi Arabia.”

“Saudi Arabia! Really! That's amazing,” I say. “You came all the way from Saudi Arabia to Korea to study and become a barista.”

“Yes.”

“That's great. Good luck.”

“Thank you.”

And of course, she also studied the Korean language at one of the twenty-five Rainbow Schools located all over the country. One of the main programs of the centre is to help children of migrant workers acquire vocational and business skills. Rainbow Schools are mainly funded by the government.

Acquiring vocational and business skills for young people of multicultural background should be given more thought in Japan, too. Many volunteer groups and NPOs are mostly concerned with the acquisition of language skills. However, very few offer skills training. A one-step higher level of support should also be offered to children with less privileged backgrounds.

## 다름으로부터 배우고 그것을 축복하자

저널리스트, 영상작가

레이 벤츄라

### 1. 새로운 기회

나는 2001년부터 일본에 살고 있지만 첫 3년간은 기본적인 일본어를 배우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였다. 당시 했던 작업은 공동체의 뉴스레터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타갈로그어로 번역하는 것이었다. 지금도 비영리단체를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2019년에 참가한 한국방문프로그램을 통해 이주자·이주노동자가 어떻게 스스로를 조직하는지, 다양한 조직들이 어떻게 이주자·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지에 대해 새로운 시점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한국 정부와 사회가 이민의 사회통합과 관련된 문제,과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였다.

이하 일본에 살아가는 이주자로서, 저널리스트로서, 공동체의 자원봉사자로서, 문제의식과 함께 제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2. 이주자 공동체의 힘

한국에 사는 미얀마출신 이주자·이주노동자들이 결성한 다양한 배경과 목적을 지닌 미얀마 공동체가 인권과 노동을 위해 싸워 온 경험을 바탕으로 함께 협력하여 2019년에 독자적 조직인 「재한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를 설립했다. 또한 한국에서는 이러한 이주자와 그들의 공동체 활동을 시민사회와 행정당국이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고 느꼈다.

반면 일본에는 필리핀노동자복지센터와 같은 단체는 없다. 거품경제로 경기가 좋았을 때도, 헤이세 시대에도 지금의 레이와 시대에도 없다. 일본에 사는 필리핀 출신 이주자·노동자는 지원, 상담, 조언이 필요할 때는 비영리단체나 자원봉사자 그룹, 가족, 친구, 교회 등에 의존하는 반면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가거나 하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아직 비공식적이며 일시적인 형태이긴 하나 최근 필리핀 출신 이주자들의 조직이 일본에서도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렇기에 한국의 미얀마출신 이주자·노동자들의 활동을

공유하는 것은 일본에 사는 필리핀인들에게 자립의 방법으로서 좋은 예, 좋은 자극이 될 것이다. 독자적 조직을 구축하는 데 있어 「너무 늦었다」라는 것은 없으니까.

### 3. 다양성의 캐치, 다양성에의 대응:일본과 한국의 차이와 공통점

한국 방문시 서울시 25개의 구 중 지역 주민의 11.4%가 외국인주민(약43만명) 이라는 구로구에서의 활동들을 접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지역에서는 숫자가 보여주듯이 다문화주의, 다양성, 사회 통합과 관련된 문제는 피할 수 없다. 실제로 다양한 그룹들의 관심사항, 문화, 민족 등을 조화시키기 위해 치우치지 않는 균형잡힌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터인데 그를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며 활동하는 사람은 많은 부분 여성이었다. 일본에서도 나의 한정된 경험에서 봤을 때 다문화, 다양성, 소수자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은 여성이었다. 일본과 한국에서 이주자, 이주노동자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활동의 최전선에 여성이 있다라는 공통적 사실을 봤을 때 이 복잡하고 섬세한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깊고, 보다 넓은 이해력과 관용이 요구되어진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한편 재학생의 약26%가 이주배경학생인 중학교를 방문하였을 때 「차이를 즐기자」라는 슬로건 하에 「반차별·반혐오 교육」, 「다문화사무실」, 「다문화하모니교실」, 「사회비전작성」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책임있는 교육자가 전하는 「차이를 즐기자」는 메세지는 강력한 제언이라 하겠다. 또한 한 가지 색밖에 없는 일본의 공립학교와 달리 방문한 중학교는 벽과 기둥, 책상, 의자가 다양한 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인권, 다양성에 대한 학생들의 그림, 작문 등이 전시되어 있어 다양성을 인정하는, 조화를 촉진하려는 태도를 느낄 수 있었다. 학교에서 보여진 모습을 통해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다양성이 실제로도 사회적 다양성을 촉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운 듯 하다.

### 4. 이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필요성

한국에서는 무료로 외국인이나 귀화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문화, 사회에 대한 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정부의 책임 하에 상세한 내용을 담은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높은 자질을 가진 교원이 강의를 진행한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방문을 통해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느꼈다. 많은 단체들이 정부로부터 자금 제공, 보조금, 업무 위탁 등의 형태로 지원을 받고 있었다. 법률에 대한 강한 의식도 있어 그러한 활동들은 법률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의사결정도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일본에 온 지 얼마되지 않았을 때,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었던 나는 (여성) 자원봉사자가 담당하는 일본어 교실을 다니면서 기본적인 일본어를 배웠다. 내가 일본에 살기 시작했을 무렵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무료 일본어 교실을 들어 본 적이 없으며 극히 일부 정부의 자금 지원이 있었을 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단체는 자발적인 자원봉사자 그룹이었다. 최근에는 정부관련기관에서 무료 일본어 코스를 제공하는 등의 변화가 있기는 하다.

일본에 오랫동안 살아 온 나지만 일본어 학습을 계속하고 싶다. 이런 나에게 존재하는 옵션 중 하나는 무료 자원봉사 일본어교실에 계속적으로 다니는 것이지만 수업의 질은 평균적인 것이다.

또한 일본에는 이주노동자와 장기체류자를 위한 무료 일본어교실은 지극히 적다. 일본에서도 한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나도 강좌에 등록할 것이다.

## 5. 다문화 배경을 가진 젊은이들을 위해

다문화 배경을 가진 젊은이들을 위한 레인보우 유스 센터. 전국에 25 곳 있다는 레인보우스쿨을 방문했을 때 긴 머리에 갈색의 피부를 가진 젊은 여성이 커피제조기로 라테를 만들고 있었다. 나의 「여기에서 일하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학생이에요, 바리스타가 되고 싶어요」라고 대답한 그녀에게 한국어 학습과 함께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 레인보우 유스 센터였다. 정부의 예산 지원 하에 다문화 배경 청소년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직업과 비즈니스 스킬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일본도 다문화 배경을 가진 젊은이들이 직업과 비즈니스 스킬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많은 자원봉사자그룹과 NPO는 주로 일본어 습득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캐리어 지원, 스킬 트레이닝을 제공하는 단체는 별로 없다. 출신배경 때문에 기회, 찬스를 얻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한 단계 높은 레벨의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 दक्षिण कोरियाबाट सिक्नुपर्ने बहुसाँस्कृतिक समाजको एकिकरण

## एभरेष्ट इन्टरनेशनल स्कुल जापान भूपालमान श्रेष्ठ

### १. जापानमा विदेशीहरूको अवस्था र समस्याहरू

जापानको आर्थिक विकासको लागि यहांको जनसंख्यामा आएको गिरावट ठूलो समस्याको रूपमा रहेको बताइन्छ । सन् २१०० मा यहांको कुल जनसंख्या करिब ७ करोड ५० लाखमा झर्ने र त्यसमा पनि ६५ वर्ष माथीको संख्या करिब ४० प्रतिशत, १५ देखि ६४ वर्षको काम गर्न सक्ने उमेरकाको संख्या करिब ५० प्रतिशतमा झरी भविष्यमा कामदारको अभाव हुने अनुमान गरिएको छ ।

अर्कोतर्फ, जापानमा विदेशीहरूको संख्यामा भने वार्षिक रूपमा वृद्धि भई सन् २०१८ मा करिब २७ लाख पुगेको छ । यसरी, जापानीको संख्या घट्ने र विदेशीको संख्या बढ्ने क्रमले जापानमा देखिएको कामदारको अभावलाई विदेशीले पूर्ति गरेको पाइन्छ । तर, जापानमा विद्यार्थी, प्राविधिक प्रशिक्षार्थी तथा आश्रित परिवार भिसामा रहेकाहरू कामदारको रूपमा रहेका छन् । जो काम गर्नको लागि नभई अध्ययन अध्यापन र पारिवारिक साथको लागि जापान आएका हुन ।

जापानमा हाल ४४ भन्दा बढि औद्योगिक क्षेत्रमा कामदारको आपूर्ति मागभन्दा कम छ । जापानमा देखिएको कामदार अभावको समस्या समाधान गर्नको लागि सरकारले सन् २०१९ अप्रिल महिनादेखि विशेष प्राविधिक अर्थात तोकुतेइ गिनोउ नामको नयां भिसाको व्यवस्था गरी विदेशी कामदार भित्र्याउन शुरू गरेको छ । जापानले पहिलो पटक साधारण कामदारको रूपमा विदेशीलाई भित्र्याउन खोजेको हो । विदेशीहरूको संख्यामा आउने वृद्धिसंगै उनीहरूका विविध समस्याहरू देखा पर्ने छन् । साधारणतया भाषाको समस्या र त्यसबाट आइपर्ने समस्याहरू हुन् । जापानी भाषा नजानेकै कारण बैंक खाता, मोबाइल फोन, कोठा लगायतका आधारभूत सेवामा प्रत्यक्ष पहुंच नपुग्ने विदेशीहरू पनि कम छैनन् । साथै, विदेशी भएको कारण विविध खालका बिभेदहरू भोग्नु परेका पनि धेरै छन् । जस्तै, कोठा खोज्ने क्रममा अधिकांश घरबेटीको पहिलो प्रश्नै उसको नागरिकता सम्बन्धी हुन्छ र कुनै राष्ट्र विशेषको आधारमा रियल स्टेटको अफिसमै प्रवेश निषेध गरिन्छ । कुनै विदेशी नागरिकको भिसाको अवधी कम छ भने उसले मोबाइल फोन लिनबाट वञ्चित हुनुपर्छ । विशेष गरी भर्खर जापान आएका विदेशीहरूले यस किसिमका समस्या भोग्नु परेका हुन्छन् ।

यसैगरी, सुचना तथा जानकारीको बहुभाषिकिकरण नहुंदा आवश्यक जानकारी नपाएर विदेशीहरू समस्यामा पर्ने गरेका छन् । आगामी दिनमा विदेशीहरूको संख्या वृद्धि भएसंगै यस किसिमका समस्याहरू झन बढ्ने अनुमान गर्न सकिन्छ । यस अवस्थामा स्थानिय निकायहरूले लागु गरेको विदेशी लक्षित विविध कार्यक्रमहरूको उपयोगिताको बारेमा थप अनुगमन गर्न जरुरी देखिन्छ ।

### २. दक्षिण कोरियाको अवलोकन भ्रमणबाट सिकेका कुराहरू

जापानको छिमेकि मुलुक दक्षिण कोरियामा पनि विदेशीहरूको संख्या वार्षिक रूपमा वृद्धि भई सन् २०२० मा ३० लाख पुग्ने अनुमान छ । पछिल्लो समयमा आर्थिक साझेदारी प्रणाली (ईपिएस) मार्फत कोरिया आउने विदेशीहरूको संख्यामा वृद्धि भइरहेको र उनीहरूको रोजगारसंग सम्बन्धित समस्याहरू पनि देखा परिरहेका छन् । त्यसैगरी बहुसाँस्कृतिक परिवार भनिने बैदेशिक विवाह मार्फत कोरिया आउने विदेशीहरूको संख्यामा पनि वृद्धि भैरहेको र फरक संस्कृतिको बुझाईको कमिले आउने समस्याहरू पनि छन् ।



मैले सन् २०१८ र २०१९ गरी २ पटक कोरियाको अवलोकन भ्रमण गर्ने अवसर पाएं । सन् २०१८ मा विदेशी कामदार तथा बहुसाँस्कृतिक परिवार सहयोग केन्द्र संचालन गरिरहेका निकायहरू, नेपाली, भियतनामी, बर्मेली समुदायसंग भेटघाट गरियो भने सन् २०१९ मा आप्रवासी विदेशीहरूको सामाजिक एकिकरणको कार्यक्रमहरू संचालन गरिरहेका निकायहरूको भ्रमण गरियो । ति निकायहरूको प्रमुख गतिविधीहरूमा विदेशीहरूको सहयोग, परामर्श केन्द्रको संचालन, आप्रवासीहरूको सामाजिक एकिकरण आदि हुन् । परामर्श अन्तर्गत शिक्षा, स्वास्थ्य, वित्तीय सेवा, भिसा, सामाजिक कल्याण, उपभोक्ता आदि दैनिक जीवन यापनसंग सम्बन्धित कुराहरू समेटिएका छन् भने आप्रवासीको सामाजिक एकिकरण अन्तर्गत कोरियन भाषा तालिम, विद्यालयहरूमा बहुसाँस्कृतिक शिक्षा, युवाहरूलाई शिक्षा, रोजगार तथा साँस्कृतिक आदान प्रदानका कार्यक्रमहरू छन् । त्यसैगरी, कामदार सहयोग अन्तर्गत तलबको अशुली, काम परिवर्तन, कुटपिट, यौनहिंसा लगायतका समस्याको समाधान छन् । दक्षिण कोरियामा कार्यरत एनपिओ/एनजिओ, स्कुल, कलेज लगायतका अनुशन्धान निकायहरूले केन्द्रिय सरकार वा सिउल सिटीबाट अनुदान प्राप्त गरी गतिविधीहरू संचालन गरिरहेका छन् । साथै, भिसाको म्याद सकिएर ओभरस्टे बसेकाहरूले पनि सरकारी अनुदानबाट संचालित निकायहरूबाट सेवा लिईरहेका कुराले म प्रभावित भएं । निजी कम्पनीहरूले पनि आप्रवासीहरूको सहयोगको लागि ठूलो मात्रामा अनुदान दिई कार्यक्रमहरू संचालन गरिरहेको पाइयो । यसरी स्थानिय निकायहरू र निजी कम्पनीहरूको अनुदानबाट आप्रवासीहरूको लागि सहयोग कार्यक्रमहरू संचालन भईरहेको र उनीहरूले दिएका सेवाहरू पनि गुणस्तरिय र प्रभावकारी रहेको पाइयो ।

### ३. जापानमा लागु गरिने आगामी नीतिको लागि अपेक्षा र सुझाव

यस प्रोजेक्ट मार्फत धेरै कुरा सिक्ने मौका पाइयो र बहुसाँस्कृतिक समाजको निर्माण र आप्रवासीहरूको सहयोगको सम्बन्धमा दक्षिण कोरियामा लागु भएका कार्यक्रमहरू जापानको आगामी नीति निर्माणमा महत्वपूर्ण सन्दर्भ सामाग्री हुन सक्दछ । जापानको बहुसाँस्कृतिक कार्यक्रमहरू स्थानिय निकायको भरमा छोडिएको टिप्पणिहरू आईरहेका छन् र कम संख्याका स्थानिय निकायहरू यस कार्यमा सकृय देखिन्छन् । उनीहरूको कार्यक्रमको प्रभावकारीताको बारेमा पनि समिक्षा गरिनु आवश्यक देखिन्छ । अर्कोतर्फ, स्थानिय निकायहरूको कार्यक्रमहरू पनि आप्रवासीहरूले दैनिक रूपमा भोगिरहेका समस्या समाधानलाई लक्षित गरिनु पर्दछ ।

अधिकांश विदेशीहरू भाषाको कारण आवश्यक सुचनाहरूबाट वञ्चित हुनु परिरहेको र विदेशीको संख्यामा आएको वृद्धिसंगै उनीहरूको आफ्नै समाज निर्माण भई त्यसका सदस्यहरू सरकारी निकाय नभई आफ्नै समाजबाट सुचनाहरू संकलन गरिरहेका हुन्छन् । तर, उक्त समाजसंग पनि सहि सुचनाहरू छन कि छैनन् भन्ने पनि एउटा समस्याको रूपमा रहेको छ । विदेशीहरूको समाज भित्र संचार भईरहेका सुचनाहरू गलत पनि हुन सक्ने र त्यसमै विश्वास गरेर आफ्नो कार्य अघि बढाउंदा नकारात्मक असर पर्न सक्ने सम्भावना पनि रहन्छ । सहि सुचना सम्बन्धित व्यक्तिसम्म पुऱ्याउनको लागि सकेसम्म बहुभाषिक रूपमा सुचना संप्रेशण/प्रकाशन गर्ने र विदेशीहरूको समाज तथा मेडियाहरूको सहयोग लिंदा राम्रो हुन्छ । साथै, सुचना प्रवाहको माध्यम परम्परागत रूपमा कागजी रूपमा मात्र नभई डिजिटल माध्यम अपनाउनु पनि उपयुक्त हुन्छ ।

माथी उल्लेख गरिए अनुसार जापानी भाषा नजानेकै आधारमा कोठा, मोबाइल फोन, बैंक खाता, क्रेडिट कार्ड आदि जस्ता आधारभूत सेवाबाट वन्चित हुनुपर्ने अवस्थामा सुधार नआएसम्म विदेशीहरूमा जापान प्रतिको धारणा नकारात्मक रहने सम्भावना हुन्छ । यस्तो अवस्थाको सुधारको लागि टोल-टोलमा साँस्कृतिक आदान प्रदानका कार्यक्रमहरू बढिभन्दा बढि आयोजना गरी विदेशी र जापानीहरूलाई सहभागी गराउनु आवश्यक छ । जसले गर्दा एक आपसको संस्कृतिको बारेमा बुझ्ने मौका पाउंछ र उनीहरू एउटै टोलबासीको रूपमा विभिन्न गतिविधीहरूमा सकृय हुन सक्छन् ।

जापानमा आप्रवासीहरूले दैनिक रूपमा भोग्नु परेका समस्याहरूको बारेमा ढुक्क भएर परामर्श लिने परामर्श केन्द्रहरू अझै पनि कम संख्यामा छन् । दक्षिण कोरियामा जस्तै जापानमा पनि सरकारी अनुदानमा निजी तथा विदेशी संस्थाहरूले

पनि परामर्श केन्द्रहरूको संचालन गर्ने व्यवस्था भएमा आप्रवासीहरूले दैनिक परमर्शमा सजीलै पहुंच राख्थे र उनीहरूको जीवन यापन पनि सहज बन्थ्यो । अर्थात्, सरकारले बहुसांस्कृतिक समाजको निर्माण र आप्रवासीहरूको सहयोगमा उनीहरूकै संस्था र निजी संस्थाहरूलाई पनि सहभागी गराएमा त्यस्ता कार्यक्रमहरू अझ बढि प्राभवकारी हुने अनुमान गर्न सकिन्छ ।

जापानको घट्टो जनसंख्या र विदेशीहरूको संख्यामा आएको वृद्धिले भविष्यमा जापानको आर्थिक विकास विदेशीहरूको गतिविधीमा भर पर्नुपर्ने अवस्था देखिन्छ । त्यसैले विदेशीहरूलाई कामदारको रूपमा मात्र नहेरी समाजको एक जिम्मेवार नागरिकको रूपमा पनि स्थापित गर्ने खालको नीति लागु गर्नुपर्ने आवश्यक देखिन्छ । विदेशीहरूलाई जापानी समाजमा घुलमिल गराउने खालको सामाजिक एकिकरणका कार्यक्रमहरू लागु गरी त्यसलाई जापानीहरू माझ पनि बुझाउनु आगामी दिनको चुनौति हो र त्यसको लागि सरकार र स्थानिय निकायले उपयुक्त नीति ल्याउने अपेक्षा गरिएको छ ।

## 한국으로부터 배우는 다문화공생과 이주자의 사회통합

에베레스트 인터내셔널 스쿨 저팬  
슈레스터 부팔 만

### 1. 일본의 이주자의 현황과 과제

일본의 경제발전에 있어 일본 사회의 저출산·고령화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2010년에는 총인구가 약 7500만명으로 감소, 총인구에서 65살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40%, 15살에서 64살까지의 노동인구가 약 50%가 될 것이라 예측되면서 인력부족은 장래에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한편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2018년 현재 약 270만명으로 매년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인 인구의 감소와 외국인 인구의 증가가 맞닿아 외국인이 인력부족 분야의 공급원이 되고 있다. 한편 체류외국인 중에는‘유학’,‘기능실습’, ‘가족체제’의 체류자격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도 많으나 그들의 체류목적은 취업이 아니라 공부와 가족통합이다.

현재 44개 업종에서 구인배율이 1배를 넘었으며 일본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인력부족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2019년 4월부터 새로운 체류자격인 ‘특정기능’ 하에 외국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소위 단순노동이라 불리는 분야에 노동자를 도입하게 됨으로서 ‘특정기능’ 하에 외국인이 유입되게 되면 일본의 이주자 구성이 전체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이주자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여러 과제와 문제가 부상하게 될 터인데, 기본적으로 언어의 벽과 그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아질 것이다. 일본어를 못하기 때문에 은행계좌 개설이나 휴대폰 개통, 집 계약 등 일상적인 라이프 라인의 문제를 안게 되는 이주자가 적지 않다.

또한 외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차별을 느끼는 사람도 많다. 예를 들어 살 집을 찾을 때 대부분의 집주인의 첫 질문은 국적에 대한 것으로 특정 국적의 경우 부동산가게를 들어서면 순간 내쫓기는

경우가 있다. 또한 체류자격의 유효기한에 따라 휴대폰 계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일본에 온지 얼마 되지 않는 이주자가 당면하기 쉬운 문제이다.

아울러 정보의 다언어화가 진전되어 있지 않기에 필요한 정보의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이주자도 적지 않다. 향후 한층 더 이주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금까지 실시해온 시책과 그러한 시책의 효과가 앞으로의 상황에 어느 정도 유효할까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진다.

## 2. 한국 방문과 한국에 대한 인상

일본의 이웃 나라인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30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와 다문화 가족이라 불리는 국제결혼 등으로 한국에 이주해 온 이주민의 증가와 그와 관련된 문제·과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듯 하다.

나는 프로젝트 멤버로 2번 (2018년, 2019년) 한국의 이주자 관련 단체를 방문하였다. 2018년에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은 이주자 관련 공적 기관과, 시민사회단체(NGO/NPO), 네팔, 베트남, 미얀마 등 이주자 공동체를 방문했다. 2019년에는 이민·이주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기관과 지역사회의 복지·상담 거점기관, 이주배경아동·청소년지원센터와 중학교 등을 방문했다.

방문한 단체의 주요 활동은 이주자 생활 지원, 상담창구 운영,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등이었다. 생활상담에는 교육, 의료, 금융, 체류자격, 보건복지, 소비자 등 생활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주자 사회통합에는 한국어 학습과 초등·중학교에서의 다문화 교육, 청소년의 교육·취업 지원, 다양한 교류활동 등이 있었다. 노동자 관련지원에는 임금체불, 직장이동, 폭력, 성희롱 등의 문제해결이 있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학교, 대학교와 같은 연구 기관이 중앙정부나 서울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문성을 인정받아 위탁을 받는 형태로 활동하고 있었다. 또한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상태의 이주자도 공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인상적이었다.

아울러 기업으로부터도 이주자 관련 활동단체에 고액의 기부나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행정 당국과 기업의 지원으로 한국의 민간 단체들이 이주자 지원활동에 힘을 쏟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 당국의 활동에 더해 민간 단체들이 공적인 위탁을 통해 이주자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었고, 그렇기에 질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 3. 일본의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와 제언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지만 다문화공생과 이주자지원 관련한 한국의 활동은 일본에서 앞으로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일본의 다문화공생 관련 활동은 “지방자치체에 위임(중앙정부의 방임)”이라 지적되며 극히 일부의 지방자치체만이 적극적이라 하는데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 온 시책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은 이주자 공동체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 일상 생활 속에서 안고 있는 과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많은 이주자들이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정확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주자의 증가와 맞물려 이주자 공동체 또한 끊이지 않고 결성되고 있다. 이주자 공동체가 일본어 능력이 없는 이주자들의 정보원으로서 기능하면서 관청이 아닌 출신국의 공동체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이주자 공동체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가 존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면서 결과적으로 그 정보에 의존한 이주자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확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정보를 다언어화하면서 이주자 공동체나 에스닉 미디어와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도 지금까지처럼 종이를 매체로 한 방법뿐 아니라 디지털화의 필요도 있을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일본어를 못함으로써 살 집, 핸드폰, 은행 계좌, 신용카드 등 기본적인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외국인의 일본에 대한 첫인상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지역에서 국제교류 이벤트나 프로그램을 자주 실시함으로써 많은 이주자와 일본인 주민이 함께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노력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을 위해 같은 주민으로서 함께 활동해 나가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일본에는 이주자가 당면한 여러 문제와 고민에 대해 mampanhi 상담할 수 있는 상담센터나 창구가 아직 적다. 한국처럼 상담센터가 정부의 위탁·지원을 받아 민간 단체나 이주자 공동체가 운영하는 체계가 만들어진다면 이주자가 생활상담 등에 보다 편히 방문할 수 있을 것이며 보다 풍족한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즉 행정 당국이 다문화공생이나 이주자 관련 지원에 이주자 공동체나 민간 단체의 참여를 보다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본의 인구 감소와 이주자 증가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일본 경제의 발전이 이주자의 활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에 이주자를 단순히 노동자로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주·정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이주자가 지역사회에 융화될 수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실시,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을 일본 국민에게도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의 과제라 하겠다. 이를 위한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정책과 방안의 도입을 기대한다.

## **Nhật Bản trong thời đại di dân** **—Tương lai của niềm tin và sự tử tế—**

(Pháp nhân) Hội người Việt Nam tại Nhật Bản VAIJ

**Trần Phương Nam**

### **1. Mở đầu**

Năm 19 tuổi, tôi tới Nhật như những du học sinh tư phí khác. Ấn tượng ban đầu về cuộc sống tại Nhật là mình giống như một người khách qua đường trong một xã hội xa lạ, cùng sự cô độc khi bị cuốn vào guồng quay của học hành và đi làm thêm gần như không có tiếp xúc với người khác, kể cả người Nhật hay người Việt. Tôi học hết trường tiếng, học lên trường dạy nghề, học chuyển tiếp lên đại học theo dòng chảy của cuộc đời. Nhưng trong những năm tháng đó, tôi không cảm thấy đây là nơi thuộc về mình. Sau khi bỏ dở đại học và đi làm, tôi bắt đầu tham gia các hoạt động xã hội và dần hiểu hơn về Nhật Bản khi nói chuyện với những người Nhật cùng tham hoạt động. Việc thay đổi đó khiến tôi suy nghĩ nhiều hơn về lý do mình tới Nhật, lý do mình ở lại Nhật, có cái gì đó thôi thúc tôi đi tìm câu trả lời cho những câu hỏi đó. Sau đó những hoạt động tôi tham gia ngày càng nhiều hơn, ban đầu là những hoạt động giao lưu giữa người Nhật và người nước ngoài (phần nhiều là với người Việt), sau đó là những hoạt động của các nhóm cộng đồng người Việt với nhau. Dần dần tôi xác định được mục tiêu là tạo ra những mối liên kết người người Việt với nhau và giữa người Việt và người Nhật

Lần này tôi tham gia vào “chương trình Giao lưu di trú Nhật Hàn” để tìm hiểu về hoạt động của các nhóm cộng đồng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Hàn Quốc, tham khảo kinh nghiệm cho việc triển khai hoạt động cho cộng đồng người Việt tại Nhật Bản và hơn hết là nói lên tiếng nói của một người di trú đang sống trong xã hội Nhật Bản.

### **2. Những đạt được từ chuyến công tác Hàn Quốc : Chính sách di dân của Hàn Quốc và hiện trạng**

Với tư cách là một quốc gia có nền kinh tế phát triển và dân số già hóa nhanh, Hàn Quốc cũng gặp vấn đề về dân số lao động giống Nhật Bản. Vào năm 2003, Hàn Quốc thông qua “Dự thảo luật liên quan đến lao động người nước ngoài”, tạo tiền đề cho các luật và chính

sách có lợi cho người lao động nói riêng và người nước ngoài sống tại Hàn Quốc nói chung. Lần công tác Hàn Quốc này là dịp để tôi và những người trong đoàn được tìm hiểu về chính sách di dân của Hàn Quốc và tình trạng thực thi các chính sách này.

Tại Hàn Quốc, các luật liên quan đến người nước ngoài có 3 luật chính, đó là “Luật tuyển dụng lao động người nước ngoài”, “Luật cơ bản đối xử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sống ở Hàn Quốc” và “Luật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Dựa vào từng luật mà quyết định cơ chế chính sách, dự toán chính phủ và các hoạt động hỗ trợ cho từng loại đối tượng. Và đặc điểm của cơ chế hỗ trợ là các hoạt động hỗ trợ trực tiếp phần lớn là do các đoàn thể xã hội địa phương tiến hành chứ không phải do các cơ quan của chính phủ như ở Nhật. Nói chính xác là các nội dung hỗ trợ theo luật định sẽ được nhà nước ủy thác cho các đoàn thể xã hội địa phương này và chi phí cho các hoạt động hỗ trợ người nước ngoài sẽ được hỗ trợ từ quỹ của chính phủ và 1 phần từ sự đóng góp của các doanh nghiệp và người dân địa phương.

Trong lần công tác này, ấn tượng để lại là lần đến thăm “Trung tâm hỗ trợ tổng hợp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Trong trung tâm thì ngoài những nhân viên chính thức thì còn được sự tham gia đóng góp của hơn một nghìn chuyên viên tư vấn, bác sỹ và điều dưỡng viên. Nội dung hoạt động thì ngoài các hoạt động hỗ trợ thông thường (Tư vấn về vấn đề lao động, khám chữa bệnh định kỳ, tư vấn thuê phòng hay dạy tiếng Hàn, lớp hướng dẫn cuộc sống tại Hàn...) thì trung tâm còn có các lớp dạy nghề hay các khóa đào tạo khởi nghiệp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Tôi khác bất ngờ vì với số nhân viên ít ỏi (chỉ có 6 người fulltime) nhưng với sự hợp tác của các chuyên gia và tình nguyện viên mà trung tâm đã tạo được những hoạt động rất thiết thực.

Ngoài ra chúng tôi còn được đi thăm 1 trường trung học có gần 30% học sinh có xuất thân ngoại quốc (bố mẹ người nước ngoài, con lai hay trẻ người Hàn nhưng sống từ nhỏ tại nước ngoài) và 1 trung tâm chuyên hỗ trợ thanh thiếu niên thuộc diện này. Ở 2 cơ quan này, trẻ có xuất thân ngoại quốc ngoài việc được học tiếng Hàn và văn hóa Hàn Quốc thì còn được định hướng tương lai và nhận được giáo dục nghề nghiệp để lớn lên có thể tự độc lập trong xã hội Hàn Quốc. Những cơ quan giáo dục như thế này tôi chưa thấy ở Nhật Bản và cảm thấy đây là hoạt động rất có ý nghĩa vì nếu những thanh thiếu niên này nhận được giáo dục tốt thì sẽ trở thành cầu nối văn hóa giữa cộng đồng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địa phương và cư dân bản địa cũng như trở thành cầu nối cho bước tiến toàn cầu hóa của nước sở tại.

Mặt khác, tôi thấy hoạt động của các tổ chức cộng đồng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Hàn Quốc lại có những điểm khá khác biệt với các tổ chức xã hội địa phương. Hoạt động của các tổ chức cộng đồng người nước ngoài có đặc điểm là dựa vào sự tương trợ của những người chung xuất thân nên dễ nhận được sự tin tưởng từ đối tượng được hỗ trợ, nhưng ngược lại các tổ chức này lại gặp khó khăn nhiều trong việc tìm địa điểm, kinh phí hay tìm nhân viên để duy trì hoạt động. Chúng tôi có đi thăm Trung tâm hỗ trợ lao động người Myanmar tại Hàn Quốc, trung tâm này được hình thành từ việc tập hợp đại biểu của trên 30 nhóm cộng đồng nhỏ của người Myanmar tại Hàn và đại diện cho những nhóm cộng đồng này

trong việc hỗ trợ về pháp lý hay tiến hành quyền góp khi cần. Đây là mô hình rất hay và có giá trị tham khảo cao cho các hoạt động của cộng đồng người Việt Nam tại Nhật Bản.

Cảm nhận trong lần đi công tác Hàn Quốc lần này là tuy kinh tế đã khá phát triển nhưng tôi vẫn cảm nhận được sự sôi động ngầm của xã hội Hàn Quốc. Người dân ở Hàn có mối quan tâm lớn tới các vấn đề xã hội và nhân quyền nên với các hoạt động công ích dễ nhận được sự quan tâm và hỗ trợ của người dân, chuyên gia, doanh nghiệp. Điều đó ảnh hưởng tích cực tới việc tham gia các hoạt động xã hội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và thúc đẩy việc tạo dựng các cộng đồng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các địa phương. Điều đó làm những người hoạt động cộng đồng tại Nhật như chúng tôi cảm thấy ao ước. Nhưng mặt khác, cùng với việc chia các đối tượng hỗ trợ ra với các chính sách riêng biệt để tạo ra những bước tường ngăn cách các nhóm đối tượng được hỗ trợ với nhau và với bản thân người bản địa. Và qua việc quan sát các chính sách cho người ngoại quốc của hàn quốc thì tôi thấy bộ phận phát huy thế mạnh đa văn hóa vẫn còn thiếu và có chút hơi hướng của chính sách đồng hóa văn hóa.

### 3. Nhật bản trong thời đại di dân

#### 1) Nhật Bản và những người trẻ tuổi mang “giấc mơ Nhật”

Ở Nhật thì do ảnh hưởng của những bộ phim Mỹ chiếu tràn lan trên TV vào những năm 60 của thế kỷ trước, mà câu chuyện về “giấc mơ Mỹ” đã được truyền lưu trong giới trẻ và có nhiều người đã bằng mọi sách để sang Mỹ với những mong ước cháy bỏng của một dân tộc thất bại sau chiến tranh. Nhưng với ngày nay, trong giới trẻ các nước đang phát triển ở châu Á thì Nhật Bản đã và đang là một biểu tượng của sự phát triển với những câu chuyện được lan truyền về “giấc mơ Nhật”. Trong những năm 80, 90 của thế kỷ trước, các nét văn hóa Nhật phim truyền hình (đặc biệt là “Osin”), truyện manga (Doraemon, Bảy viên ngọc rồng...), trò chơi điện tử nên danh tiếng của Nhật Bản được đẩy lên cao. Thêm vào đó là nền kinh tế đứng thứ 2 thế giới hay độ nổi tiếng của những công nghệ mang tên “kỹ thuật Nhật Bản” đã tạo nên ảnh hưởng lớn tới các thanh thiếu niên ở các nước đang phát triển thời bấy giờ. Hiện tại những thanh thiếu niên đó đã trở thành tầng lớp lao động chính của xã hội và họ bắt đầu khăn gói lên đường qua Nhật để tìm cách thực hiện giấc mơ thuở nhỏ có tên “Japan Dream”.

#### 2) Nhật bản với tình trạng thiếu hụt nguồn lao động và danh tiếng đang thấp dần

Chúng ta vẫn nghe đài báo nói về câu chuyện thiếu hụt nguồn lao động ở Nhật Bản, nhưng câu chuyện thực tế thì nghiêm trọng hơn các bài phân tích rất nhiều. Hiện nay, NHK đang chiếu 1 đặc tập về những xí nghiệp Nhật phá sản hàng loạt do làm ăn thua lỗ,

mà trong đó 1 phần nguyên nhân là do không có người lao động. Những kỹ thuật đặt biệt chỉ có ở các công ty vừa và nhỏ của Nhật sẽ mất dần mà không có người nối nghiệp. Các chính sách về lao động người nước ngoài được đưa ra để đối phó với tình trạng này mà điển hình là chính sách về mở rộng tiếp nhận du học sinh và tu nghiệp sinh kỹ năng.

Nhưng có một lỗ hổng trong các chính sách này đó là mảng trợ giúp, hỗ trợ người nước ngoài và xử lý các tranh chấp phát sinh. Lỗi không hoàn toàn do ở phía Nhật bản mà một phần do các tổ chức trung gian môi giới người ở tại các nước cử người đi, nhưng những tin tức xấu về môi trường làm việc, đãi ngộ hay phân biệt đối xử có xu thế truyền lưu về nội bộ các nước này. Bây giờ người lao động hay du học sinh có thể lựa chọn một số điểm đến khác ngoài Nhật như Hàn Quốc, Đài Loan, các nước châu Âu và Nhật Bản đã không còn là lựa chọn ưu tiên với tư cách là điểm dừng chân cho ước mơ xuất ngoại.

### 3) Tương lai của niềm tin và sự tử tế

Đối với người mang “giấc mơ Nhật” như tôi, Nhật Bản có sức hấp dẫn đặc biệt mà không nơi nào có được. Nền văn hóa đặc sắc, những kỹ thuật hàng đầu thế giới, hệ thống sản xuất hiệu suất cao, là cội nguồn của các tư tưởng sống sâu sắc, tất cả đều là những thứ đáng để học hỏi. Vấn đề của Nhật Bản hiện nay là làm sao để phát huy những thế mạnh của bản thân nước Nhật, làm sao để làm sự tử tế trong văn hóa Nhật được lan tỏa và thay đổi nhận thức của thế giới về Nhật Bản, biến chính sách lao động người nước ngoài trở thành môi trường để tạo ra những nhân tài kết nối Nhật Bản và thế giới trong thời đại toàn cầu hóa. Để làm được điều đó, tôi mong Nhật Bản sẽ nghiên túc trong việc thúc đẩy xây dựng “Xã hội Cộng sinh Đa văn hóa”.

## 4. Chung tay xây dựng xã hội Cộng sinh Đa văn hóa

Xã hội Cộng sinh Đa văn hóa là “Xã hội được tạo dựng dựa trên nền tảng tôn trọng sự khác biệt văn hóa và quán triệt tinh thần cộng tồn - cộng vinh”. Do đó để tạo ra một xã hội như vậy cần tạo ra một môi trường mà cả người dân, doanh nghiệp, đoàn thể xã hội Nhật, và người nước ngoài, các cộng đồng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Nhật đều có thể tham gia.

Một số điều có thể tham khảo qua chuyến thăm hàn Quốc là : ① Các buổi hướng dẫn về sinh hoạt tại Nhật cho người mới sang bằng tiếng mẹ đẻ, ② Các khóa hướng dẫn cho công ty tiếp nhận người lao động trước khi nhận người, ③ Cơ chế hỗ trợ cho những người lao động đang làm trong các công ty Nhật, ④ Cơ chế xử lý khi có tranh chấp xảy ra, ⑤ Các hoạt động giao lưu văn hóa giữa người nước ngoài và người Nhật ở địa phương, ⑥ Chương trình đào tạo nhân tài trong bối cảnh toàn cầu hóa. Để thực hiện những hoạt động này, cần sự hợp lực của các bên liên quan để đưa ra những việc thiết yếu cần tiến hành và lên lịch cụ thể để thực hiện chúng.

Bên cạnh đó, có một sự thật là hiện tại xã hội Nhật Bản chưa có nhận thức rõ về các



문제 xã hội và nhân quyền liên quan đến người nước ngoài cư trú tại Nhật. Hiện tại, có nhiều vụ việc đau lòng xảy ra tại nơi làm việc, nên chẳng chính phủ Nhật nên xem lại việc hướng dẫn doanh nghiệp trước khi tiếp nhận người nước ngoài và có cơ chế xử phạt nghiêm các công ty vi phạm.

## 5. Lời kết

Nhật Bản đã thông qua việc sửa đổi Luật nhập cảnh vào tháng 12 năm 2018 và lần sửa đổi này được xem như sẽ mở ra thì một thời đại mới với cộng đồng người nước ngoài sinh sống tại Nhật. Cùng với các chính sách hỗ trợ đi kèm, lần sửa đổi này được kỳ vọng là sẽ thúc đẩy Nhật Bản tiến vào thời đại của “Xã hội Cộng sinh Đa văn hóa” nơi mà người Nhật và người nước ngoài cư trú tại Nhật sẽ cùng chung sống. Nhật Bản sẽ làm thế nào để đương đầu với những vấn đề sẽ phát sinh khi người nước ngoài đột ngột tăng lên? Nếu chuẩn bị tốt cho các vấn đề này sinh thì có thể sẽ mở ra một tương lai tươi sáng cho xã hội Nhật.

# 「이민시대」일본 —신뢰와 배려의 미래—

일반사단법인 재일베트남인협회

찬 풍 남

## 1. 들어가는 말

나는 19살에 일본에 와 다른 사비유학생과 다를 것 없는 유학생생활을 보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불안감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과 잘 소통하지 못하는 고독한 나날을 보냈다. 일본어학교, 전문학교, 대학교에 진학했지만 일본사회에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대학 중퇴 후 취직하게 되면서 이를 계기로 참가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일본인과 만나 이야기할 기회가 늘어나면서 일본 사회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게 되었다. 또한 나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도 찾아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 후 일본인과 이주자가 함께 활동하는 모임과 베트남 출신 공동체에 참가하게 되면서 이주자와 일본 사회와의 연결하는 역할을 맡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한편 한일 양국의 이주자교류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 후 한국과 일본에 이주해 온 다른 공동체의 활동을 접하고 배움을 얻게 되면서 주일베트남인 공동체 구축을 위한 시점을 얻을 수 있었고 이주자로서 「이민시대」일본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생각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었다.

## 2. 한국방문을 통해 :한국의 이민정책과 현황

일본과 같이 노동인구 감소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은 2003년에 고용허가제 관련법 제정을 시작으로 이주자 관련 법률·정책을 검토, 실시하는 등 이주자와 관련하여 커다란 전환이 있었다.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에서 이주자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등을 방문하게 되면서 한국의 이민정책의 현황을 알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이주자 관련 법률로 고용허가제 관련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있으며 이들 중심 법률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 시책에 대한 예산과 지원 활동이 정해진다. 또한 특징적인 점은 이주자 관련 지원을 정부기관이 직접 시행한다기 보다는 시민사회단체 등에 위탁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다는 것이다. 단 시민사회단체가 실시하는 이주자 관련 활동은 정부의 위탁, 조성과 아울러 기업이나 시민들의 기부와 참가로 이루어진다.

한국에서 방문한 곳 중에서 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원스톱 센터가 인상적이었다. 거기에서는 센터의 상근 직원 이외에 협력 관계에 있는 법률 전문가, 의사, 간호사 등이 1000명 이상있다고 한다. 활동 내용도 일반적인 지원활동(노동 환경 상담, 정기적 의료 지원, 부동산 상담, 오리엔테이션, 한국어 교육) 이외에도 직업훈련이나 창업과정 등이 있었다. 상근직원은 많지 않지만 자원봉사자와 전문가의 협력으로 부족함 없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에 놀랐다.

아울러 이주배경아동이 많은 학교와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센터를 방문하였는데 그 곳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훌륭한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국어, 한국 문화 뿐만 아니라 장애에 대한 취업지도, 직업훈련 등 한국 사회에서 자립하도록 하는 교육은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었다.

한편 일본의 이주자 공동체 활동은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와 비교하여 활동의 내용 등 많은 점이 다르다. 이주자 공동체는 같은 출신국의 이주자들과 상부상조한다는 정신으로 운영되기에 지원 대상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쉬운 반면 활동 장소, 활동 비용 등을 스스로 조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인재 확보도 과제이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얀마출신 이주자들이 운영하는 노동자 센터는 30 곳 이상의 미얀마 공동체의 대표자들이 상의, 단결하여 결성했다고 한다. 현재 주일베트남인도 작은 모임이 많이 생기고 있지만 이를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기에 매우 참고가 되는 모델이라고 느꼈다.

아울러 한국을 방문해 느낀 것은 조금 침체된 분위기의 일본과 달리 사회 전체가 활기가 넘친다는 것이었다. 또한 한국의 시민들은 사회문제, 인권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느꼈다. 그 때문에 사회를 위한 공익적 활동이 시민, 기업, 전문가들의 응원과 지원을 얻어 이루어지고 있었고 한국에서 생활하는 이주자와 이주자 공동체의 의식이 높았다. 나를 비롯해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주자 공동체가 보았을 때 부럽게 느껴졌다. 다만 한국에서는 이주자를 대상별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과 이주자, 또는 대상이 다른 이주자 간의 벽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다문화공생정책이라기보다 동화정책으로서의 측면이 강하다고도 느꼈다.

### 3. 「이민시대」일본

#### 1) 일본과 저팬 드림을 가진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청년들

일본에서는 1960년대에 TV를 통해 방송된 미국 드라마로 인해 아메리칸 드림의 붐이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의 청년들 사이에서는 저팬 드림이 유행하고 있다. 1980년, 90년대부터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의 TV에서 일본의 만화(도라에몽, 드래곤볼 등)와 드라마(특히 오싱)이 방송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인기가 높았다. 당시 세계 2위의 경제력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기술력도 매우 매력적이었기에 일본을 동경하는 소년, 소녀들이 증가했다. 그 소년, 소녀가 현재 20대, 30대의 청년이 되어 일본으로 가는 「저팬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 외국인기능실습생과 유학생이 되어 일본에 오고 있으며 나 또한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 2) 인력부족이 심각해진 일본, 국가 브랜드의 저하

일본의 인력부족 문제를 자주 듣지만 그 문제는 상상하는 것보다 어려운 상태까지 와 있다. NHK의 특집 「대폐업시대~사회를 파악한 보내는 사람~」에서는 인력부족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시대를 맞이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노동인구 감소로 인본이 세계에 자랑하는 기술도 사라지고 있다. 인력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외국인기능실습생과 유학생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주자를 위한 정책, 지원 체계, 문제 대응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원인의 하나로 송출국가의 악질적인 브로커라는 존재가 있었지만 일본 국내의 지원 체계, 문제 대응의 부족함도 있어 임금체불, 차별 등의 나쁜 사례가 베트남 국내에 퍼져가면서 현재 일본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낮아지고 있다고 느낀다. 현재 일본 이외의 국가에 눈을 돌리면 지원체계가 정비되어 있는 한국, 대우가 좋은 유럽, 입국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대만 등, 일본보다 좋은 선택지가 존재한다. 좋은 인재는 일본보다 다른 선택을 하는 경향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다.

#### 3) 이민시대 일본:신뢰와 배려의 미래

저팬 드림을 가지고 온 내가 봤을 때 일본은 훌륭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독특한 문화, 세계가 인정한 최고 레벨의 기술, 효율성 높은 생산 시스템 등, 배울 것들이 많다. 앞으로 증가할 젊은 이주자들에게 그들의 성장을 가능하게 해 주는 일본을 세계에 보여주면서 그런 젊은 이주자들을 일본과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인재로서 키워나가는 신뢰와 배려있는 일본이 되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도 「다문화공생사회」의 실현에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 4. 다문화공생사회:누가 만들까

「다문화공생」이란 「이문화(다문화)를 이해한 후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일본인, 일본 기업은 물론 이주자 공동체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적어도 한국에서 본 경험을 바탕으로 말하자면 ①입국 후 바로 일본 생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실시 (가능하면 모국어로) ②이주자를 채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채용전 세미나

실시 ③취업한 이주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④문제 대응 시스템 ⑤지방자치단체의 일본인과 이주자의 문화교류 촉진 ⑥이주자를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 등의 대응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것들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기관·민간단체·지방자치단체는 힘을 모아, 아울러 이주자와 이주자 공동체도 참가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향후 일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이주자의 노동 환경과 인권 문제가 아직 그다지 인식되어 있지 않고 있다고 느낀다. 인식 레벨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 현장에서 많은 비참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지금, 기업에 대한 도입 교육을 다시 한 번 재고하여 법률 위반에 대해 엄격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 5. 마치며

일본은 2018년 12월 입관법 개정으로 이주노동자 도입에 있어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법개정이 일본이 다문화공생사회로 변화해 가는 계기로서 긍정적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란다. 급증하는 이주자, 이러한 현실에 제대로 대응함으로써 보다 나은 미래가 열리지 않을까.

# 앞으로의 방향성

## 한일이주자공동체교류 프로젝트의 성과와 향후 과제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완

### 1. 한국과 일본의 이민정책의 범위란

한국과 일본은 이주노동자를 필요로 한다는 상황과 함께 이주자에 대한 배타적 경향도 존재한다는 유사한 특징을 보여준다. 즉 지리적으로도 근접한 한국과 일본은 이민정책에 있어서도 상호간에 매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많이 알려진 것처럼, 일본의 외국인기능실습제도는 한국의 산업연수생제도 설계에 참고가 되었고 현재의 일본도 이민정책 변화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한국 상황을 많이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특정기능’ 비자 신설로 시작된 최근의 일본의 이민정책의 변화는 또 다시 한국의 이민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한국과 일본에 이주자를 보내는 송출국은 동일한 국가인 경우도 많아, 양국의 이민정책에 따라 아시아의 여러 국가가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받게 될 것이다. 즉 한국과 일본의 이민정책의 변화는 단순히 한 나라의 이민정책 변화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를 비롯한 많은 송출국의 경제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하다.

한편 한일 양국 모두 이주자 또는 다문화사회 전체에 대한 반감 나아가 조직적인 움직임이 보인다는 과제를 함께 안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과제가 아닌가 한다. 한국과 일본의 상황은 이미 여러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는 유럽사회와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한일 양국 사이에서도 이주자와 난민에 대한 반대가 양국의 사회 문화적 차이로 인해 비슷하면서도 다른 측면을 보이기도 한다. 한일 양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해 나가는 것도 이민정책이 다루어야 할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이와 같은 이민정책을 둘러싼 논점들을 생각하는 데 있어 한국과 일본의 이민정책과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이주자 공동체를 상황을 살펴보는 이번 프로젝트가 이주자 지원활동을 하는데 나 개인에게 있어서도 당연히 큰 의미가 있었다.

## 2. 한국과 일본의 차이에서 보이는 앞으로의 방향성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부 이주자이 많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면, 중앙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수행하는 정도의 업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본 일본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상황에 맞는 이주자 지원정책 또는 교류 정책을 보다 자유롭게 구성하는 차이가 보였다.

이주자 공동체도 한국의 이주자공동체들이 중앙집권적인 네트워크 또는 통합된 단일 네트워크를 추구하는 나라들이 있으나, 일본의 경우 전국적이고 단일한 국가별 이주자 공동체를 보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배경에는 높은 교통비, 보다 넓은 영토,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이는 개별화된 정책 특성이 이주자 공동체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한일 양국의 이민정책과 이주자 공동체 활동에서 보여지는 차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과제가 되겠지만, 양국에게 요구되어지는 일정한 방향성은 있을 수 있겠다. 이는 향후 이주자 공동체 활동을 생각하는 데 있어 삶의 장소와의 접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와 관련된다 하겠다. 즉 삶의 장소인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주자 공동체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연계해 나갈 것인가, 지역에서 일상을 함께하는 선주민과의 접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학교라는 장소를 어떻게 볼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도 몇몇의 나라별 학교가 존재하지만, 일본의 브라질학교 네팔학교와 같은 사례는 매우 드문 경우이다. 때문에 일본의 네팔 학교를 방문하기 전까지, 이런 나라별로 특성화된 학교가 과연 필요할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방문한 네팔학교를 비롯해서 이주자 나라별 외국인 학교를 방문하며, 학교운 영진의 생각과 운영방식 그리고 학생들을 보면서, 일종의 나라별 외국인 학교가 이주배경 아동 및 청소년에게 다른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학교라고 하는 장소가 이주자 공동체의 힘, 존재 방식과도 연결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심각한 인종차별문제에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되었다. 최근 한국에서는 혐오표현금지조례, 인권조례, 문화다양성조례, 민주시민교육조례 등 각종 인권관련 조례들이 이 혐오 세력의 조직적인 반대활동으로 계속해서 무산되고 있다. 한일 양국 모두 이주자를 혐오하는 특정세력이 점차 조직화, 세력화되고 이들의 혐오표현이 보다 매우 일상적으로 사용되며 더욱 대중화되고 되고 있다는 큰 문제에 당면해 있다. 한국에서는 최근 정치권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등화된 최저임금 적용에 관한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오기까지 하고 있다.

단 일본과의 차이로 한국의 경우 보수기독교의 일부 그룹이 이주자와 난민을 혐오하는 세력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로, 난민 반대, 이슬람교 반대를 외치며 종교에 기반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종교지도자가 그 중심에 서 있는 경우도 많다. 이는 개신교를 믿는 사람이 많지 않은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일 것이다. 하지만 일본에도 한국과 동일하게 이주자 또는 다문화사회를 반대하는 그룹들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점차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일 양국의 상황을 봤을 때, 일본 내에서 법의 실효성 논란은 있으나, 일본의

혐오표현금지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혐오표현금지조례는 한국 사회에서의 혐오 세력에 대한 대응에 있어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혐오 세력이 개최하는 집회 등에 대한 일본의 시민단체 또는 일반적인 시민들의 카운터 데모를 비롯한 대응 활동은 한국에서 조직화, 세력화된 혐오 세력을 막아내는데 좋은 사례라 하겠다. 인종차별과 관련하여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양국의 시민사회가 인종차별 대응에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며, 거기에는 이주자 공동체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인종차별철폐를 위해, 더욱 활발한 교류와 연대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의 이민정책이 단순히 두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응모준비과정과 선발과정, 입국 전 준비와 교육 하나 하나가 송출국의 사회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예로 네팔의 경우, 2019년 고용허가제 한국어 시험을 응시한 인원이 9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중 한국에 올 수 있는 실제 인원은 10%가 채 안되며, 결국 대다수의 인원 8만명이 넘는 사람들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헛되이 쓰게 되고 이는 결국 송출국 자국 입장에서 보면, 매우 큰 경제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게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사람의 이동이라는 것은 단지 노동인력의 이동이나 임금을 통한 일부 자본의 이동뿐만이 아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이 함께 이동하는 것으로써 이를 통해 송출국과 유입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화와 사회 변화 양상 또한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이민정책이 국내적 영향, 변화에 그치지 않고 한국과 일본을 넘어 이주자를 보내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 사회에 지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아시아 전체에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요구되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 다음 단계를 향하여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류센터  
이혜진

## 1. 한일 양국의 이주자의 현재

한국에 있으면 ‘다수자’. 일본에 있으면 이주자라는 ‘소수자’. 한국출신으로 일본에 사는 나 자신의 모습이며 누구나가 경험할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 즉 이주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며 어느 사회에든 있는 ‘보통’의 존재이다.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은 사회의 ‘보통적’ 존재인 이주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것일까. 이 물음이야말로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서 ‘이주자로 살아가는’ 네팔,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출신 멤버들과 함께 진행해온 2년간의 프로젝트를 통해 보인 한국과 일본의 현재 모습은, 양국 모두 사회의 다양한 방면에서 활약하는, 사회에 참여하는 이주자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주자가 ‘가시적 존재’로 인식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인식의 폭이 아직은 한정적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통해 보인 현재의 모습은 답답함이라기 보다는 앞으로의 기대를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무엇이 기대를 느끼게 한 것일까.

## 2. ‘일본으로부터 배운다’, ‘한국으로부터 배운다’를 넘어선 배움

이주자와 관련된 한일간의 교류를 되돌아보면, 한국과 일본에 이주자가 증가하기 시작한 1990년대에는 한국의 외국인산업연수제도가 상징하듯이, 일본이 한국보다 이주의 역사가 길며 한국이 일본에 제도를 답습하고 있다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일본으로부터 배운다’라는 성격이 강했다. 이에 반해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정부가 이주자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모습을 보고, 정책 전환없이 ‘외국인’ 도입을 추진하는 일본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로서 ‘한국으로부터 배운다’라는 경향이 강해졌다. 하지만 한일 교류의 축을 이루었던 ‘일본으로부터 배운다’, ‘한국으로부터 배운다’는 관점은 양국의 특징적인 흐름을 중시한 나머지 양국 정부가 계속해서 내놓는 이주자 관련 정책이 야기할 수 있는 이주자와 그들의 공동체에 대한 영향의 복잡한 측면을 서로가 명확히 인지하며 대응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프로젝트의 이주자 멤버들의 보고에서도 ‘한국으로부터 배운다’, ‘일본으로부터 배운다’라는 관점이 명확히 보인다. 한국의 이주자 멤버들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는 가운데 이주자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배양해 온 지혜와 세심함을 가진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배워야 할 점’으로 이야기했다. 한편 일본의 이주자 멤버들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여와 예산 지원 아래 한국어 습득을 비롯해 취업 지원, 의료 서비스 등의 공적인 서비스를 위탁을 받은 민간단체가 전문성을 살려 제공하고 있는 한국의 제도적 기반 정비를 배워야 할 점으로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통한 배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한일 양국의 이주자멤버들은 이주당사자이기에 아울러 출신과 배경 등이 다르기에 이주자 공동체가 안고 있는 현재의 공통점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과제에 있어서의 공통점도 인식하였다. 아이들의 교육과 정체성 문제에 대한 방안으로서의 에스닉 스쿨이라는 존재, 단기·중기적인 노동 목적의 이주에 대한 대응, 공동체 구성원의 다양화에 대한 대응, 공동체의 지속성을 위한 인재와 채용의 확보 등 이주자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하는가에 대한 공통 과제를 공유하였다. 또한 한국과 일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국과 일본사회와 보다 열린 형태로 연결점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 요구되는 이주자 공동체의 역할도 공유되었다.

한일 양국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양국 사회, 정부에게 요구되어지는 정책적 시점을 명확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자국민 이주자만을 활동 대상으로 여기기 쉬운 이주자 공동체의 역할을 재인식함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한정적으로 보이는 현재의 변화를 기대로 인식하게 만든 건 아닐까라 생각한다. 즉 이주자 유입국에서의 이주자 지원 양태와 제도에 내재된 시점을 바꾸는 것과 이주자 공동체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사회에서 이주자가 한층 더 ‘가시적’ 존재로 진전시키며 이주자의 ‘선택지를 늘리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였던 것이 아닐까.

### 3. 한일 교류의 다음 단계를 향해: 새로운 과제의 인식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과 일본의 이주자 정책은 관련법을 제정하면서 정책 전환을 꾀한 한국과, 이주자 관련 정책의 전환이 없는 일본이 대비되는 형태로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일본정부가 2018년 입관법을 개정하고 ‘외국인재 도입과 공생을 위한 종합적 대응책’을 책정함으로써, 외국인기능실습생과 유학생이라는 ‘변칙적 도입’이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외국에서 노동자를 도입하는 새로운 제도적 틀이 정비되었으며 이주자를 둘러싼 이슈에 사회통합이라는 시점이 정책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는 한국과 일본의 이주자 정책이,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로테이션방식’으로 도입하고, 이주자를 교육, 노동,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으로 본다는 정책적 대응이 수렴되어 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다.

본 보고서에서 한일 이주자멤버가 양국을 방문한 후 배워야 할 점이라 생각한 활동과 정책 등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멤버들에게는 과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었다. 이는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제도적 기반의 정비와 ‘일본으로부터 배워야 할 현장에 뿌리를 둔 배려있는 대응이라는 것은 이민정책으로서 모두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이를 제도적 틀로 만들어 가는데 있어, 그리고 실제로 운영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힌트는 이미 한일 양국의 지금까지의 시행착오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한일 교류의 배움이 양국 정부에 의한 정책적 수렴이 불관용과 배제로 나아가지 않도록 연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한편 이러한 한일 양국의 이주자 정책의 수렴은 양국 사회에 지금과는 다른 관점에서 대응해 나갈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먼저 한국과 일본이 한층 더 ‘이민사회’로 진전되게 되면서 이주자의 사회적 존재감은 커질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유럽과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 관찰되는 것으로 여겨지던 사회문제로서 ‘이민의 정치화’가 한일 양국에게도 무관한 일이 아니게 될 것이며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어진다 하겠다. 동아시아 인접국가와의 외교, 정치적 관계 악화가 발단이 되어 표면화된 일본의 헤이트 스피치와, 무슬림 난민에 대한 반이슬람 감정으로부터 확대되어 온 한국의 난민·이민 배척의 움직임은 시발점은 다르지만 이주자에 대한 배제, 배척이라는 공통적 과제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배움을 요구한다.

또 하나는 한국과 일본이 외국으로부터의 ‘노동자’ 도입을 ‘로테이션 방식’을 기본으로 하는 가운데 기한이 정해진 노동이주의 기회를 얻으려 하는 사람들이 보다 공정하고 안정된 형태로 이주를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한 힌트는 ‘반복된 노동이주를 막기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이주자 공동체에 의한 오리엔테이션’, ‘송출과 도입 관련된 모델 만들기’라는 이주자 멤버의 보고에 있다 하겠다. 즉 한일 양국에서 어려움에 처한 동포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지원을 제공하는 존재로 여겨지기 쉬운 이주자 공동체의 활동을 ‘이주국인 한국·일본’라는 틀에 가둬둘 것이 아니라 ‘송출 국가인 모국’과 ‘삶의 장소인 한국, 일본’을 이어주는 존재로 폭넓게 생각하는 발상이다. 이러한 발상을 실천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배움 또한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요구되어진다 하겠다.

「이주당사자에 의한 정책제언-한일 양국의 이주당사자의 교류와 배  
움을 통해」사업보고서

## 이주자로 살다-이주자가 이야기하는 한국과 일본-

---

발행처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류센터  
(Japan Center for International Exchange)

Meisan Tameike Bldg. 7F.  
1-1-12 Akasaka, Minato-ku, Tokyo 107-0052  
Tel: (03) 6277-7811 Fax: (03) 6277-6712  
URL: [www.jcie.or.jp](http://www.jcie.or.jp)

표지디자인·레이아웃: Patrick Ishiyama

편집·한일번역: 이혜진

본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이주자로 살다 -이주자가**  
이야기하는 한국과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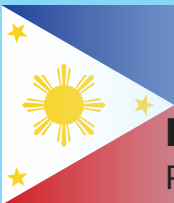
**移住者として生きる**  
移住者が語る日本と韓国



ရွှေ့ပြောင်းနေထိုင်သူရဲ့ရှင်သန်ခြင်း  
ရွှေ့ပြောင်းနေထိုင်သူကပြောတဲ့ဂျပန်နဲ့  
ကိုးရီးယားနိုင်ငံအကြောင်း



**एक आप्रवासीको रुपमा जिउने**  
आप्रवासीको भनाईमा जापान र कोरिया



**Buhay bilang dayuhang-manggagawa**  
Pakinggan mga tinig mula sa Japan at South Korea



**Cuộc sống của Người di trú**  
Nhật Bản và Hàn Quốc qua con  
mắt Người di trú